



大韓民國學術院通信

Monthly Newsletter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발행인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 <http://www.nas.go.kr> / T.3400-5250 F.535-8836 / 편집 : 학술진흥과



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선정소위원회 개최(2023.8.21.)

이달의 주요기사

신 임 회 원 업 적 소 개	인문사회 제3분과 (한국사)	高東煥 會員 2면
	인문사회 제6분과 (경영학)	韓仁九 會員 7면
	자연 제2분과 (해양지질학 및 고해양학/고기후학)	禹卿植 會員 10면
회 원 기 고	아름다운 얼굴의 시각적 및 심리적 특성	鄭燦燮 會員 16면
	피톤치드가 건강에 좋은가?	安鎭興 會員 20면
분과 및 학계 동향	한글 전용,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張敬烈 會員 24면
추 모 사	과학과 실천의 심리학을 제시하다-조대경 교수님을 추모하며-	李載湜 教授 32면
학 술 교 류	제20차 세계사회학대회 참가기	林玄鎭 會員 37면
학술원 소식	회의 및 행사 안내	46면

[신임회원 업적소개]

인문사회 제3분과 고동환 회원 (한국사)



1. 연구성과 개요

1980년대까지 조선시대사 연구는 농업과 향촌사회, 사회신분과 사상 그리고 정치사 분야가 중심이었다. 특히 조선후기 농업과 향촌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사연구는 식민사관의 정체론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내재적 발전론의 시각에서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농업과 향촌사회 연구에 견줘 도시와 상업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불균형은 조선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장애였을 뿐만 아니라, 부조적(浮囂的)인 연구라는 비판을 받는 요인이기도 했다. 필자는 그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시대 포구상업, 시전상업, 도시사, 교통사 분야를 개척하여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1998, 지식산업사), 『조선시대 서울도시사』(2007, 태학사), 『조선시대 시전상업연구』(2013, 지식산업사), 『한국전근대교통사』(2015, 들녘) 등 4권의 단독저서, 학회지 논문 51편, 공저(Book Chapter 포함) 42편, 서평 6편 등의 연구를 발표했다. 필자의 연구는 한국사학계가 20세기 후반 식민사관을 극복하면서 이룩한 내재적 발전론의 주요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필자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이 난에서는 단독저서 4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2.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1998, 지식산업사)

필자는 농업과 향촌사회 연구에서 도출한 조선후기 사회경제상이 구조적인 역사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연구들이 상업과 유통분야의 연구와 정합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84년 석사논문으로 「18·19세기 외방포구(外方浦口)의 상품유통발달」을 제출했고, 그 이후 10년 동안 필자는 포구상업의 전국적 중심지인 경강(京江)과 서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1993년 박사학위논문으로 「18, 19세기 서울 경강지역의 상업발달」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에서 확립된 조선사회의 ‘발전’과 ‘변동’의 역사상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의 ‘구조’와 ‘운영’에 비중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박사论문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책이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이다. 이 책의 서평(『역사와 현실』 29호, 1998,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관찬연대기는 물론 고지도, 지지류(地誌類), 등록(騰錄), 사목(事目), 완문(完文) 등의 자료를 방대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동문취고(同文彙考),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騰錄) 등 표류관계기록을 통한 선상(船商)과 포구간 시장권 형성에 대한 분석은 저자가 자료를 취급하는 안목을 보여주는 압권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이용방법은 앞으로 상업사 연구자들의 새로운 자료찾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같은 서평에서 “기존 연구가 상인층의 성

격, 유통기구 등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에 그침으로써 상업부문에서의 내재적 발전상을 구조화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졌음에 비해, 이 책에서는 상품유통경제와 관련된 제반 요소, 즉 인구문제, 교통로, 시장권, 상인, 상품유통체계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고,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조선후기 상품유통경제의 발전이 특권상인에서 자유상인으로의 변화만이 아니라 교통로, 시장권, 상품유통체계에 이르는 구조적인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실증해 냄으로써 부조적 수법으로 비판되었던 조선후기 상품유통경제의 내재적 발전상을 재확인했으며, 이 책은 조선후기 상업사연구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 가능성과 연구방법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고,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조선후기 역사상을 확고하게 해 준 역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1999년 제39회 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인문사회부문)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대상 및 출판지원도서로 선정되어, 2019년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교수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출판(『朝鮮後期ソウル商業發達史研究』東京堂出版社, 東京)되었다.

3. 『조선시대 서울도시사』(2007, 태학사)



필자는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재적 발전론의 관점을 계승하면서도, 조선후기 사회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다양화가 필요

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도시사로 연구방향을 전환하였고,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출간 이후 10년 동안 도시사연구에 전념하였다. 조선시대 한양의 형성문제, 인구문제, 도시구조와 도시문제, 도시민의 생업과 도시문화, 국가의 도시민 지배방식인 역제(役制)의 변화, 도시행정체제의 변화, 그리고 도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업과 시장문제, 그리고 도시공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여 각각 전문저널에 발표하였고, 이들 논문을 바탕으로 2007년 『조선시대 서울도시사』를 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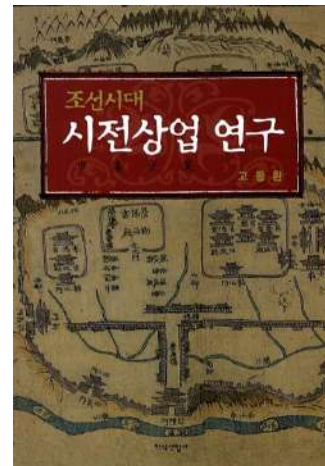
이 책에서 밝혀진 주요한 사실을 꼽자면, 첫째 한양이 수도로 정해진 사상적 배경을 풍수지리설로 보는 통설을 비판하고 한양 정도(定都)와 건설은 고려 후기 남경 설치와 남경 천도설 단계, 태조의 한양 천도단계, 태종의 한양 환도단계, 세종대의 한양 정비단계를 거쳐 이루어졌고, 각 단계를 추동한 이념은 상이했으나, 한양을 수도로 확정하는 결정적 논리는 ‘유교적 이념에 기초한 경제적 합리주의’로 파악하였다. 둘째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 추세를 조선왕조의 호구자료와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추론하여 서울의 인구는 1669년 22만 명 수준에서 1720년대에 25만 명, 1770년대 30만 명, 그리고 1820년대 35만 명, 1870년대에 33만 명, 1900년대 33만 명 수준으로 이해하였다. 셋째 17세기 후반 이래 서울은 대동법과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을 계기로 노동력의 상품화가 촉진됨으로써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 빈민의 형성, 도시 공간의 확대와 기능 분화라는 도시 외관만이 아니라 도시주민의 성격에도 질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한양의 주민들은 수시로 노동력을 징발당하는 중세적 방민(坊民)에서 대부분 돈을 받아 정부의 각종 요역에 동원되는 도시민으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시민들은 상인·수공업자와 임노동자층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음을 실증하였고, 그 결과 서울에서는 맹아적이긴 하지만 도시빈민문제, 주택문제, 산지개간과 이에 따른 연례적인 홍수 문제, 경제범죄의 확산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음과 더불어 향촌의 사대부들과 달리 서울의 경화사족(京華士族)과 여향인(閭巷人)에 의해 향유된 독특한 도시문화도 나타나고 있음을 서술했다. 넷째 서울 주민에게 방역(坊役)으로

부과된 장빙역(藏氷役)이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형태에서 1663년 (현종 4) 물납세로 전환되었다가, 1741년 (영조 17)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었고, 그 이후 동빙고와 서빙고의 채빙(採氷), 저빙(貯氷), 반빙(頒氷)은 정부 재정을 기초로 겨울에 품삯을 주고 이루어지거나, 또는 여름에 민간 장빙업자에게 얼음을 구입하는 무빙제(買氷制)로 운영되었다. 30여곳에 달하는 민간 장빙업자들은 한해에 1만냥의 자본을 투자하여 2만냥에서 20만냥까지 벌어들였기 때문에 장빙업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장빙도고(藏氷都賈)도 출현하였다. 원래 요역(徭役)으로 운영되던 얼음의 채취, 저장, 분배하는 과정이 이윤동기가 지배하는 영업으로, 즉 역(役)에서 업(業)으로 변모한 것이다. 다섯째 도시의 변화는 행정 편제의 변동을 통해 완결되거나 또는 촉진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오부(五部)-방(坊)-계(契)로 이어지는 한성부 행정 편제의 실제적 의미와 기능의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고찰하였다. 주목한 것은 계의 성격변화였다. 계는 원래 방역의 응역 단위인 자치조직으로서 인적 결사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주거 공간의 동일성이 전제가 되는 한성부 최말단 행정단위로 변모하였다. 동질의 주민 집단이라는 요소의 약화하는 계에 대한 방역 부과의 차별성을 형해화시킴으로써 한성부 주민이 모두 균질한 역을 지는 것으로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서평(『역사와 현실』 72호, 2009,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한국사에서 도시사를 표방한 최초의 연구이고, 현재 한국 도시사연구를 대표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표할 업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또 다른 서평(『경제사학』 45호, 2008, 경제사학회)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의 시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계승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학자적 생명을 남기기 위해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연구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서평(『도시연구』 1호, 2009, 도시사학회)에서는 “회화, 호적,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의 구조와 운영을 밝혔다”는 점에서 문헌자료에 의존을 탈피하여 본격적인 도시사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는 조선시대 다른 도시들을 분석하는 기초를 제공한 연구”로 평가하고 있으며, 요시다 미츠오(吉田光男) 동경대 명예교수는

그의 저작인 『近世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2009, 草風館)의 머리말에서도 이 책을 매우 주목할 만한 노작(勞作)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2008년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4. 『조선시대 시전상업연구』(2013, 지식산업사)



필자는 도시사 간행 이후 과제로 남겨두었던 도시상업의 핵심분야인 시전상업연구에 전념하여 2013년 『조선시대 시전상업연구』를 펴냈다. 이로써 1984년 외방포구 연구로부터 시작한 30년간의 상업사 연구를 한단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 책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시전상업의 형성에서 해체에 이르는 시대적 변화를 다루었고, 5장에서 8장까지는 시전상업의 구조와 운영을 다루었다.

이 책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17세기 난전금지제도가 확립되고 육의전 체제가 성립하는 과정을 밝힌 부분이다. 그리고 시전체계의 붕괴와 사상체계의 성립이라는 서울상업계의 본질적인 변화는 사상의 성장이라는 측면 외에도 점포상업과 수공업, 상업적 농업의 발달, 그리고 상가와 상권의 확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고 평가하였다. 태종때 성립한 시전제도는 성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16세기 국제무역의 성행,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차례 전쟁, 18세기 상공업 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금난전

권(禁亂塵權), 시안(市案), 분역(分役), 육의전(六矣塵) 등의 시전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해왔음을 실증하였다.

시전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서는 관찬 문서가 아닌 상인 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동업조합으로서의 시전의 조직과 운영, 상업조직으로서 시전의 상품유통문제, 특권상인으로서 왕실과의 관계를 해명하였다. 시전 도중(都中)은 시전 동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혈연관계가 도중에 가입하는 데에 기본 요건이고 도원들은 정연한 위계서열로 편제되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지위가 올라갔으며, 전방(廳房) 사용료인 방세와 영업세 성격의 분세(分稅)가 도중 수입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내외어물전 사이의 분쟁을 다룬 문서를 통해 어물전과 지방 어상(魚商)의 관계, 그리 어물의 유통구조를 고찰하였다.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 이전부터 어물전이 지방 어상에 대해 구매독점권을 행사하다가 분세 징수권으로 독점권 행사의 내용이 바뀌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국가와 시전의 관계를 시전의 국역(國役)을 통해 살폈는데, 시전이 ‘어용적 상업기구’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서평(『경제사학』 55호, 2013, 경제사학회)에서는 “조선시대 시전상업의 역사 전체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고찰하였고, 시전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로 평가하고 있다.

5. 『한국전근대교통사』(2015, 들녘)



전통사회의 역사학은 시간, 공간, 인간을 아우르는 역사지리학의 영역을 포괄한다. 그러나 근대역사학에서 공간에 대한 탐구는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근대역사학의 연구경향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교통과 공간을 중시하는 상업과 도시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펴낸 것이 『한국전근대교통사』이다. 공간은 물리적 거리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규명되었을 때, 공간은 정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도시사가 특정 공간에서 전개된 인간의 역사를 다룬 것이라면, 교통사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방법과 수단의 시대적 변천을 탐구함으로써 특정 시대의 인간을 규정하는 물질문화의 일단을 해명하는 것이다. 필자는 교통사를 비롯하여 의식주 등 물질문화에 대한 탐구가 과거의 역사상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전근대 교통체제가 한반도의 자연조건과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라는 정치사회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각 지역 간의 연결과 통합 그리고 분리 문제가 교통망을 통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산지가 많고, 삼면이 바다이며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강이 흐르는 자연조건 하에서 육운·수운·해운의 수준은 철도 도입 이전의 한반도 문명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육로와 해로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 해로를 통한 일본과의 교류는 한반도의 문명 기반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반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물길로 연결될 수 있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졌기 때문에 전근대 한반도의 교통은 수운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해상 교통망과 달리 육상교통망은 고려시대 이래 개경과 한양을 중심으로 한 X자형(字型)의 역로망(驛路網)이 중심 도로망으로 기능하였다. 한양이나 개성을 중심으로 남북 간 도로망은 비교적 잘 발달된 반면, 동서 간 도로축은 발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영남과 호남 간의 연결 도로망, 함경도와 평안도 간의 연결 도로망은 매우 취약했다. 이와 같이 수도를 핵으로 한 육상 도로망은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했지만, 지방

과 지방을 연계하는 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중심의 도로망이 집중적으로 정비, 개설되는 것과 아울러 그동안 길이 험해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제대로 오갈 수 없었던 산악 지방의 험산준령을 넘는 고갯길도 여러 개 개척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양과 원산을 잇는 도로망도 19세기에는 철령로(鐵嶺路), 삼방간로(三防間路), 설운령로(雪雲嶺路) 등 3개로 늘어났다. 철령로는 조선초기부터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관진(關鎭)을 두어 관리하던 역로(驛路)였지만, 삼방간로와 설운령로는 모두 상인들이 상품유통의 효율성을 위해 개척한 첩로(捷路)였다. 이처럼 첩로의 개척으로 한양과 전국이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지만, 도로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말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원시적 상태의 도로망과 교통수단이 한국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장애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한말의 외국인처럼 전근대 한반도의 교통을 낙후된 것으로만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통망과 교통수단은 그 사회의 자연조건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근대 교통사는 발전과 정체성의 일원적 패러다임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평저선(平底船) 구조의 전통 한선(韓船), 지게와 길마, 발구 등은 한국의 전통 기술이 한반도의 자연조건에 부단히 적응해나가면서 확립한 교통수단으로서 한국 문명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평저선 구조는 한선의 단점이자 곧 장점이었다. 우선 이물이 뿔족하지 않기 때문에 파도를 헤쳐나가는 능력은 부족했다. 물의 저항이 커서 배의 속도도 침저선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평저선은 바닥이 평평하기에 갑작스레 썰물이 되어도 배가 좌초되어 전복될 위험이 없었고, 좌우 선회 능력이 뛰어났다. 전

통 한선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과 암초가 많은 한국의 해양조건에 적합하게 진화해왔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선박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평탄한 도로가 적었고, 조금만 가면 개울이나 하천을 건너야 했다. 특히 교량의 부족은 수레 운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수레 운송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 말, 소의 등을 주로 이용했다. 이러한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길마나 발구, 지게가 개발될 수 있었다. 지게는 단거리의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짐을 멀리 운송하는 데는 말, 소, 당나귀 등의 가축을 이용했다. 한국의 조랑말은 몸집이 작지만 지구력이 강해 형편없는 먹이를 먹고서도 80kg의 짐을 싣고 하루에 50km를 운송할 수 있었다.

『한국전근대교통사』는 삼국시대부터 철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의 교통사를 기왕의 관련 분야 연구들을 종합하여 통사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육상 도로망, 대양 항로와 연안 항로와 항해술,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하운(河運), 수레와 선박 등 교통수단, 교량과 도로, 역참과 조창과 같은 교통시설 등의 시대적 변화를 개설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책에 대한 서평(『朝鮮史研究會會報』 216호, 2019, 朝鮮史研究會, 日本)에서는 “방대한 기왕의 연구를 소화한 위에서 삼국시대부터 개항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한국 교통사를 일관된 체계로 수준높게 정리한 개설서로서, 이러한 작업은 저자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신임회원 업적소개]

인문사회 제6분과 한인구 회원 (경영학)



회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는 재무회계이고 회계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두번째는 관리회계이고 회계정보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1984년 일리노이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회계학과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경영의 미래는 컴퓨터의 활용에 있다고 보고 회계학의 전통적인 분야가 아닌 회계와 정보기술의 융합분야인 회계정보시스템을 전공하였다. 전산학과에서 인공지능과목을 수강하면서 박사논문으로 인공지능기법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도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회계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통계적 기법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도산을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인공지능 기법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은 1980년대에는 선도적인 연구였다. 이후 인공지능 기법과 통계적 기법을 통합하여 신용평가 및 도산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전통적인 회계모형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부임하여 회계·재무정보시스템(Accounting &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연구실을 개설하고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인공지능을 회계 및 재무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3년 한국신용정보의 산학연구과제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신용평가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한국신용정보의 신용평가전문가들로부터 지능형 신용평가시스템의 예측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이 시스템을 NICE-AI로 명명하고 한국신용정보의 신용평가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어 실무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금융계에 KAIST 회계·재무정보시스템 연구실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삼성생명보험, 보람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

로부터 산학연구과제를 요청받아 각자의 금융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기계학습을 통해 각 회사에 적합한 지능형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용등급의 분류 및 부도율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시키는 통합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켰다. 산학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담당자들에게 인공지능망 등 인공지능 기법의 활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금융산업계에 인공지능 기법을 보급하였다.

연구자로서 금융회사의 산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효익은 연구자료의 획득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인 신용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축적된 신용자료는 금융회사의 자산으로서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연구자로서 연구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신용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거절당한다. 산학과제를 수행하면 금융회사는 소중한 신용자료를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 및 고객회사의 보안정보 등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익명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두번째 효익은 회사는 산학과제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산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연구자료와 학생지원이라는 두 가지의 효익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

세번째의 효익은 산학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과 신뢰를 쌓게 되고 금융회사는 학생들의 실력과 성실성을 파악하게 되어 과제를 마친 후 금융회사의 입사제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첫 과제인 한국신용정보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은 졸업전에 한국신용정보의 입사제안을 받아서 한국신용정보의 전문직으로 취업하였고 그 이후 다수의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후 졸업전에 금융회사의 입사제안을 받아서 신용평가

부서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금융회사의 보안자료로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신 용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산학과제의 결과 중 학술적인 부분은 자료를 제공한 금융회사의 허락을 구한 후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의 석박사학위논문의 일부로 발전시켰고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로 연결되었다. 박사학 생들은 산학과제로 산업현장의 경험을 쌓고 박사연구의 일부로 발전시켜 학술지에 투고하는 성과로 나타나게 되 면서 연구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논문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HICSS(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Asia-Pacific DSI(Decision Science Institute) 등의 국제학술 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인공지능 기법 중 인공신경망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였고 사례기반추론, 자기조직화지도(self organizing map), 유전자알고리즘, 퍼지이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을 응용하고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인공지능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경영 분야에 도입하고 실험하였다.

신용평가에서 출발한 연구는 이자율 예측, 주가 예측, 환율 예측 등의 새로운 분야로 진화해 갔다. 지능형 신용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연구경험을 토대로 장 은경제연구소, 대한투자신탁 등의 산학과제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자율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자율 예 측의 경우에도 인공지능과 통계적 기법의 통합모형의 성과가 기존 통계적 모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예측은 단기, 중기, 장기의 세단계로 진행하였다.

동원증권의 산학과제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종합주 가지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과거의 주가 및 경제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거쳐 1일후, 1주일후, 1개월후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산학과제의 연구결과 및 경험을 토대로 종합주가지수 예측, 산업별 주 가지수 예측, 개별기업 주가 예측 등 주식시장 관련 다양한 학술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원증권과 산학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공지능 모형을 활용한 주가의 예측결과를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고 객에게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신용평가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반면 주가 예측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자료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예측성고가 낮아져 주가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은 금융현장에서 보조적인 도구로만 활용되었다.

경제 예측에서 매우 어렵다는 환율 예측에도 도전하였다. 환율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환율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켰고 금융의 새로운 주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노력을 지속하였다.

1993년 인공지능의 응용에 관심있는 경영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를 창립하였다. 이 학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였고 4대 회장을 맡아 국제학 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생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는 융합연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로부터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사 및 평가 분야에서 학술연구 를 진행하면서 산업계의 산학과제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정보시스템의 다운사이징을 실행한 광주은행의 산학과제로 내부전산감사제도를 개발하였다. 다운사이징 이후 광주은행의 새로운 정보환경에 적합한 내부전산감사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감사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한국전산원의 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산학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보통신부의 학술연구과제 로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보안관리를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999년에는 당시 정보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Y2K의 문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를 증권협회의 산학과제로 수행하였다. 정보보안분야의 산학과제의 성과와 경험은 정보시스템 보안 및 평가 분야의 학술논문의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경영학계에는 지식경영이 화두로 등장하였다. 1998년 매일경제신문과 KAIST는 최고지식 경영자과정을 공동개설 하였고 이 과정의 지도교수로서 교육을 통해 지식경영을 산업현장에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지식경영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모여 1999년 한국 지식경영학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지식경영학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고 4대 회장을 맡아 World Congress on Intellectual Capital를 서울에 유치하여 지식경영의 글로벌화에 기여하였다. 한국지식경영학회는 학제적 연구를 이끄는 중견학회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재단의 3년 장기 연구과제로 데이터마이닝과 Knowledge discovery process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오롱건설의 산학과제로서 코오롱건설의 지적자본 모형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오롱건설에 적합한 지적자본모형을 설계하였고 실행방법론을 제시하였다. SK텔레콤의 산학과제로 지식자산보고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SK텔레콤의 지식자산을 실제로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지식자산의 측정과 공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지식자산의 측정과 공시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을 토대로 지식자산 및 지식경영에 대한 이론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술논문으로 발전시켰다.

한국경영정보학회의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편집위원장 등을 맡아 봉사하였고 2012년에는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을 맡아서 ICT융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전국에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하고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에서 개최하여 학회의 균형발전을 지향하였다. 한국경영정보학회로부터 최우수논문상을 3회 수상하였다.

한국경영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 봉사하였고 2017년에는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아서 외국에서 창업하여 큰 성공을 거둔 한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한상대회에 최초로 경영학회 세션을 만들어 한국경영학계에서 한상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라오스의 최대기업인 코라오는 오세영회장이 1997년에 창업한 한상이다. 2017년 코라오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고 2022년에는 코라오의 이후 5년간의 발전과정에 대한 두번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한 과제를 경쟁력 제고로 보고 경영학의 여러 전공분야의 교수 13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연구하여 2017년 한국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직각혁신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고 한국경영학회의 주관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경쟁력 제고 전략을 보급하였다. 한국경영학회로부터는 학술공헌상 및 K-Management 혁신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동아일보로부터 대한민국 경영대상 학

술공헌상을 수상하였다.

회계학연구는 주로 재무제표의 숫자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영자의 메시지 등 문서를 text mining을 해서 정보를 추출하거나 재무제표의 숫자와 연계시켜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회계학연구는 전통적으로 기업레벨의 연구로서 기업의 재무제표의 정보효과를 다루어 왔는데 이를 산업레벨, 국가레벨로 확장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현금흐름을 산업별, 국가별로 합해서 산업지표 및 거시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GDP 등 거시지표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야는 거시회계학(Macro Accounting)이라고 불리우며 경제학연구와 연계해서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대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동화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은 둔화되는 반면 벤처기업의 고용효과가 높아서 벤처기업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2020년대 이후 벤처의 성공요인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벤처창업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2회 수상하였다.

KAIST MBA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벤처생태계인 KOC(KAIST One Club)의 자문교수를 맡고 있으며 2022년부터 엑셀러레이터인 KOC파트너스가 개설한 K-IPO(Initial Public Offering) School에서 벤처창업자들에게 자금조달 및 엑시트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SCI급 학술지의 68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17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정보보안, 핀테크, 블록체인 등 진화하고 있는 정보기술을 회계, 재무, 경영관리에 응용하는 융합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KAIST에서 30년 동안 가르치면서 지도교수로서 48명의 박사를 배출하였고 이 중 3명은 미국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30여명은 국내대학의 교수로서 융합연구를 계승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40명의 석사학사의 지도교수로서 논문연구를 지도하였다. ㉠

[신임회원 업적소개]

자연 제2분과 우경식 회원 (해양지질학 및 고해양학/고기후학)



우경식 교수는 1980년인 대학원 시절부터 최근까지 현재의 바다는 물론 과거에 일어났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해양지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였다. 현생환경에 살고 있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각질(skeletons)이나 화석으로 나타나는 탄산염 입자(carbonate skeletons), 탄산염입자로 이루어진 퇴적물 및 암석을 대상으로, 과거 해양의 물리·화학적 조건을 추적하고, 그 자료로서 추적할 수 있는 과거 기후의 변동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탄산염 입자에 대한 조직분석을 바탕으로 지화학 분석자료(안정동위원소와 미량원소)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나타나는 현생 및 홀로세 퇴적물로부터 내륙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탄산염암까지 여러 시대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 지역은 국제 해양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ODP (Intergrated Ocean Drilling Program)에 참여하여 타히티섬 부근에 위치하는 산호초,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협력 연구로서 연구원의 해양 연구기지가 위치하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축(Chuurk) 지역 산호초 주변의 열대 지역으로부터 남극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에는 극지연구소와 협력하여 북극 심해퇴적물을 이용한 고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해양/고기후 연구는 현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의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한 이유로 제3차 IPCC 보고서부터 현재까지 과거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미래의 기후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후를 정량적으로 연구하여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의 고기후 연구는 주로 육상기원의 퇴적물(퇴적암)을 이용하여, 고해양 연구는 해양기원의 퇴적물(퇴적암)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당시에는 고

기후 연구와 고해양 연구는 연계되지 않고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연구로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해양과 육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학계에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즉, 북대서양의 해양환경의 변화가 동아시아 몬순기후의 변화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극지방 기후변화도 적도수렴대(ITCZ)의 움직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학설로서 받아들여졌다. 우경식 교수가 지난 40년간 수행한 해양지질 및 고해양/고기후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부근의 해양지질 연구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생 탄산염퇴적물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천해와 해안가에는 탄산염입자로 이루어진 천해퇴적층과, 해안 사빈, 그리고 해안가의 탄산염 사구퇴적층이 분포한다. 우경식 교수는 국내 최초로 제주도 해안가를 따라 나타나는 해안 사빈을 이루는 탄산염 입자를 구분하였고, 탄산염 해안사빈이 제주도의 동부와 서부 해안을 따라 주로 나타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들 퇴적물은 주로 연체동물, 저서성 유공충과 홍조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탄산염 입자로 이루어진 해빈의 위치는 제주도 내륙에 분포하는 하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제주도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도 일부 용암동굴(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내에서 성장하는 탄산염 동굴생성물의 성인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하였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주도 지역 해안가에 분포하는 탄산염 사구퇴적층의 구성성분과 생성시기를 밝혔다. 사구의 연령은 모두 6,000 yr BP 이내로서, 이 퇴적물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현재 위치로 상승한 시기의 연령과 일치한다. 즉, 빙하기가 끝난 후, 해안선 근처에서 탄산염퇴적물이 퇴적된

후에 해안가 해빈의 모래가 육지로 이동하며 사구가 생성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구퇴적물과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용암동굴(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내에서 성장하는 동굴생성물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용암동굴 내 동굴생성물의 구성 광물인 단백질과 방해석의 성장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각 광물의 성장이 과거 제주도 주변의 기후변화를 반영한다고 제안하였다. 용천동굴의 석순에 대한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소빙하기의 시기를 정확히 제시했으며, 당처물동굴 석순의 조직을 이용하여, 지난 2,000년 동안의 한반도 주변의 기후변화를 밝혔다.

제주도 우도의 서광리 해빈은 해빈퇴적물의 100%가 탄산염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이 홍조단괴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해빈 퇴적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산호의 조각으로 간주되어 제주도 주민들로부터 ‘산호사’라고 불려 왔다. 우경식 교수는 2002년에 이 퇴적물의 구성 입자가 산호의 조각이 아닌 홍조류가 해저에서 구르면서 자라는 ‘홍조단괴’라고 수정하였다. 이후 이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홍조단괴의 성인과 형성과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도 해안 사빈 내에 퇴적물로서 분포하는 홍조단괴는 모두 해저에서 생성되어 해안가로 운반된 것이다. 실제로 홍조단괴가 해저에서 성장하는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지구물리탐사 기법과 병행하여, 홍조단괴의 분포가 해저 지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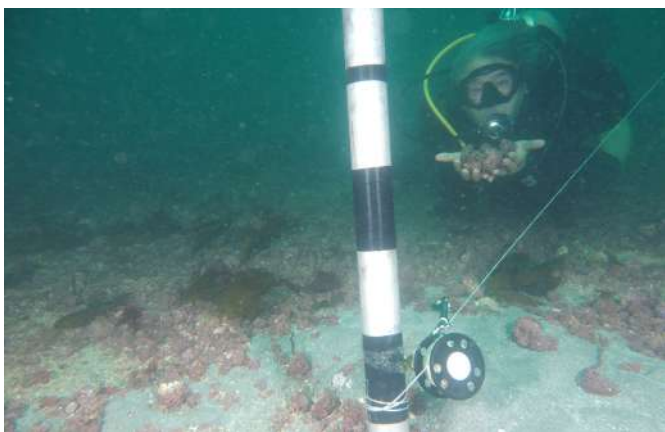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 우도와 성산사이의 우도수로에서 다이빙조사를 하는 모습. 필자의 손과 바닥에 홍조단괴가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해안가를 따라 서귀포층이 분포하며, 이 층은 천해환경에서 퇴적된 쇄설성 퇴적물과 화산쇄설물이 혼합되어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층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척추동물의 화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귀포층 내에 대형의 가리비조개 화석이 분포한다. 하지만 현생 환경의 제주도 천해에는 같은 종의 가리비조개 화석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가리비조개 화석에 대한 고해양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체동물 화석의 $87\text{Sr}/86\text{Sr}$ 초기비를 이용하여, 서귀포층의 연대를 약 70~80만년 전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가리비조개와 완족류 화석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하여, 이들이 지금보다 추운 기후의 영향을 받던 빙하기 동안에 서식했던 사실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서귀포층 내에 지금의 제주도 천해보다 더 따뜻한 해양환경에 서식하던 산호류와 복족류들의 화석이 이들과 함께 발견되는 사실은 서귀포층의 퇴적암이 빙하기와 간빙기 동안에 서식하던 화석을 모두 퇴적물로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림 2. 제주도 서귀포층에 나타나는 대형 가리비조개 화석. 과거 빙하기 동안 제주도 부근에 살던 것으로 지금보다 매우 추웠던 천해환경을 지시한다.

동해안 해안가에 분포하는 탄산염 입자를 이용한 고해양 지시자(proxy) 연구

한반도 동해는 온대기후 대에 위치하므로 천해 해양환경의 수온 변화가 매우 크다. 동해안을 따라 위치하는 여러 사질 해빈 지역은 주로 쇄설성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퇴적물 내에는 다양한 무척추 생물의 탄산염 각질이 발견된다. 이들 중에서 어느 생물의 각질이 고해양환경의 추위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최

북단의 고성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경상북도 울진과 평해를 거쳐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탄산염 각질을 가지는 다양한 생물의 시료를 채취한 후, 이들에 대한 지화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연체동물, 완족류, 따개비류가 좋은 지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특정 이매패류를 선택하여 이들이 해양환경을 얼마나 잘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동해 심해퇴적층을 이용한 고해양 연구

동해 심해에 퇴적된 원양퇴적물을 이용한 고해양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와 협력하여 심해퇴적물 중에서 규조류 산출 정도를 이용하여 신생대 제4기 후기의 고해양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심해퇴적물 내의 알케논을 추출하여 지난 30만 년 동안의 동해 표층수의 수온변화를 추정하는 연구에 기여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의 해저에 분포하는 한국대지(Korea Plateau)의 사면에서 탄산염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한국대지는 일본열도가 한반도로부터 분리되면서, 동해 해저에 남아 있는 대륙지각의 일부이다. 이 퇴적물에 대한 $87\text{Sr}/86\text{Sr}$ 초기비를 분석하여, 이 퇴적층이 신생대 마이오세에 퇴적된 천해퇴적물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는 한반도 포항, 울산, 경주 부근에서 발견되는 신생대 마이오세 연일층군의 퇴적암류의 연령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동해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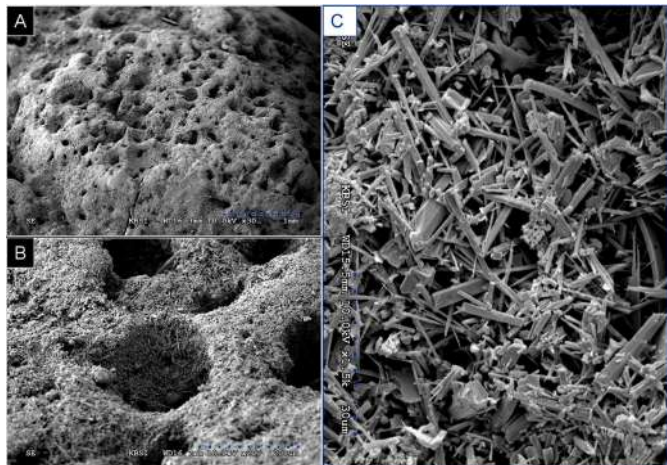


그림 3. 동해 심해퇴적층에서 발견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유리작용에 의해 생성된 결핵체 내부의 전자현미경 사진. 침상의 아라고나이트 결정이 발견된다.

독도 주변의 해양지질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의뢰로 약 3년 동안 독도 주변 퇴적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장 스쿠버다이빙과 해양조사선을 이용하여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도 주변의 퇴적물은 화산쇄설물을 약간 포함하는 탄산염 퇴적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독도 부근의 근해와 대륙붕 지역, 그리고 심해에 이르기까지 수심에 따라 독특한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퇴적물이 분포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독도의 탄산염 퇴적물은 태평양 전체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학계에 최초로 보고했다.



그림 4.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독도 주변의 퇴적상.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해양지질 연구

2000년대 중반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력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해저 조사를 수행하면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된 상부층에서 탄산염 결핵체를 발견하여, 이들의 성인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결핵체는 아라고나이트, 고마그네슘방해석, 저마그네슘방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낮은 탄소동위원소 값을 보여준다. 이는 이 결핵체가 하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로부터 유리된 메탄가스가 황산염 환원대(sulfate reducing zone) 하부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산화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제안했다.

양식진주에 관련된 해양지질 연구

남해안 여러 지역에서는 양식진주 생산을 위한 양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진주는 진주조개 내에 핵을 강제로 주입시켜, 진주가 조개 내부에서 핵 주위로 자라

게 유도하여 생산된다. 주입하는 핵의 전량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지만, 국내 양식업계에서는 왜 수입한 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핵의 대체 시료의 확보가 국내에서 가능한지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식진주와 핵에 대한 조직적 및 지화학적 분석을 통해 수입하는 핵은 중국과 미국의 민물조개의 각질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핵에 대한 조직적 분석 결과, 이 핵의 광물과 조직은 양식진주와 같은 아라고나이트로 이루어진 진주층 미세구조(nacreous microstructure)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른 탄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을 가공하여 핵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서해안 조간대 관련 해양지질 연구

우경식 교수는 2012년부터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내 갯벌을 연구하는 해양학자들과 지속적인 학술적 교류를 하였다. 추진위원회에서 연구를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발전시켜, 국내와 국제 학계에 이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서해안 영종도 갯벌에서 채취된 능철석(siderite)로 이루어진 탄산염 결핵체의 성인을 밝히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해양지질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지가 위치하는 마이크로네시아 축(Chuurk) 환초의 웨노(Weno)섬 부근의 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조사 중에 채취한 대형 이매패류의 안정동위원소 성분을 분석하여, 이 이매패류가 엘니뇨-남방진동(ENSO)을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십 년 이상을 성장한 대형 이매패류를 분석한다면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제 공동시추 사업(ODP, IODP)을 통한 국제협력 해양지질 연구

200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의뢰로 IODP 310 (Tahiti Sea Level Change)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에 한국대표로 참여하였다. 한국에서 맡은 연구분야는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의 부정합면 하부에 위치하는 플라이스토세 산호초의 속성작용에 관한 연구이며, 이 연구 결과 이 지역 산호초는 여러 차례의 해수면의 변동에 의해 산호초 석회암이 천해 속성작용-민물 속성작용-천해 속성작용의 순서로 속성작용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반도 패총을 이용한 홀로세 고해양(동아시아 몬순기후 변화) 연구

한반도 전역에는 해안가를 따라 다수의 패총이 분포한다. 국내 패총에서 나오는 여러 이매패류를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서산, 경상남도 김해, 제주도의 패총 지역이며, 이들의 연령은 2,000~4,000 yr BP의 범위이다. 연구 결과, 서산과 남해의 패총의 이매패류는 주변 해수과 담수 유입의 영향을 받은 해수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매패류에 대한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패총의 이매패류가 살던 천해 해역은 동아시아 몬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홀로세 후반부인 약 3,000~4,000 yr BP에 중국 남중국해로부터 유입된 담수(Changjiang River Discharge)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안했다.

태평양 망간단괴와 망간각에 관련된 해양지질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요청으로 태평양 심해에서 산출되는 망간단괴 인근의 석회암에 대한 속성작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심해에서 일어난 탄산염 속성작용은 조직적으로 석회암이 거치는 민물 속성작용의 산물과 매우 유사하나, 산소 안정동위원소 성분은 민물속성작용의 산물과 뚜렷이 구별되었다. 또한, 서태평양 해저산에서 채취한 망간각에 대한 조직 및 지화학적 연구를 수행

하여, 망간각은 여러 성장단계를 보여주며, 각 성장단계는 심해 해양환경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제안했다.

남극 지역의 해양지질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의뢰로 남극 세종기지 부근에 서식하는 이매패류에 대한 조직 및 화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매패류의 성장연령은 LA-ICP-MS를 이용한 원소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 분석결과를 통해 서남극 지역의 용빙수의 유입량을 추정했다. 분석 자료를 동남극 지역에서 채취된 같은 이매패류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남극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육지로부터 유출된 용빙수의 양이 동남극에 비해 많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열대 해양지역의 적도수렴대(ITCZ)과 무관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북극해의 고해양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의뢰로 북극해 심해에서 시추한 코아시료를 분석하였다. 퇴적물 내의 여러 구성성분을 조사한 결과, 시료 내의 자생 탄산염 광물이 표층 구간으로부터 거의 전 구간에 걸쳐 발견되었다. 자생 탄산염 광물은 아라고나이트와 방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은 이 광물이 퇴적물 속에서 자생으로 성장한 것을

지시하고 있다. 자생 탄산염 광물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결과, 아주 높은 탄소동위원소 성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들 광물이 퇴적물 속에서 무산소환경인 메탄가스생성대(methanogenic zone)에서 자란 것을 의미한다. 퇴적물의 표층부에서부터 이 자생 탄산염광물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과거 빙하기 동안에 북극해가 무산소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이론을 국제학계에 제안하였다.

신생대 연일층군의 화석을 이용한 고해양 연구

신생대 마이오세 연일층군 퇴적암은 선상지-삼각주(fan-delta) 퇴적층과 반원양성 구조토로 이루어진다. 이 퇴적층 내에는 다수의 무척추동물 화석이 포함된다. 조직적으로 잘 보존된 화석의 각질에 대한 Sr 동위원소 성분을 분석하여, 이 퇴적층의 절대연령을 추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성분을 분석하여 과거 동해가 생성된 직후, 동해 초기의 해양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연일층군의 탄산염 결핵체는 이러한 무산소환경에서 생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생성과정은 결핵체 주변 암석을 퇴적시킨 퇴적작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안했다.

중생대 경상누층군 탄산염입자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

한반도 내에는 남동부 지역과 남해안을 따라 중생대 경상누층군 백악기 퇴적암류가 분포한다. 이 지층 중에서 호수에서 퇴적된 지층 내에는 열대지역 천해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 우이드(ooids) 입자와 해안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내에는 특이한 형태의 증발 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건조한 기후에서 고염분을 가진 호수 내에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양층군 내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조직 및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 고염분을 가진 호숫물 내에서 주기적으로 염분이 변하면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 5. 북극 심해퇴적층에서 발견된 탄산염광물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아라고나이트로 이루어진 이 자생 광물은 과거 북극해가 빙하기 동안에 무산소환경이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그림 6. 중생대 경상누층군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슬랩사진.

고생대 조선누층군 탄산염암을 이용한 고해양 연구

조선누층군 동점층 사암에서 발견되는 해양성 피솔라이트를 보고하면서, 이 피솔라이트가 생성된 오르도비스기 천해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높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았던 ‘Greenhouse period’이었기 때문에, 저마그네슘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해양성 피솔라이트가 천해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월지역 영월층군 영흥층과 태백층군 내 예미각력암 및 막골층을 조사하여, 석회암 내에 증발암의 흔적을 발견하고 과거 이 퇴적암이 퇴적된 시기에 한반도 지역은 매우 건조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천해 환경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제시했다.

석회동굴 동굴생성물을 이용한 제4기 고기후 연구

동아시아 석회동굴 내 동굴생성물을 이용한 고기후 연구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강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의 고기후학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이러한 고기후 연구 결과는 현재에도 한반도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West Pacific Warm Pool의 고해양 조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 우경식 교수는 국내 석회동굴 내에서 성장하는 동굴생성물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몬순의 강도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강원도 섭동굴의 5년 동안 성장한 종유관의 지화학 기록 내에서 태

풍 매미와 루사의 활동을 추적하였고, 석순의 조직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빙하기와 간빙기의 영향을 파악했다. 또한 석순에 대한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빙하기와 간빙기 동안의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강도를 추정했다. 2014년에는 국내에서 채취한 여러 석순의 고해상도 안정동위원소와 조직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남반구와 북반구에 서로 상반된 기후변화의 원인이 적도수렴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내용을 Nature에 게재했다. 또한, 경상북도 울진 성류굴 내에 성장하는 석순과 동굴 내 호수의 관계를 파악하여, 호수에 현재 잠겨있는 석순들이 과거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성장했음을 밝혔다.

지질유산의 보전을 위한 국내 및 국제활동

2002년부터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양지질에 관련된 연구 이외에도 지질유산의 보전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해왔다. 2007년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을 등재시켰으며, 2010년에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 이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2012년부터 서남해안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진단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2019년에 한국의 갯벌 4곳(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켰다. 유네스코의 지질유산 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현장실사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질유산의 보전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자연보전의 최고기관인 국제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내 보호지역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의 지질유산 전문가그룹(Geoheritage Specialist Group)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양 지질유산을 포함한 모든 지질유산의 보전을 위해 최근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다. 🌐

[회원기고]

아름다운 얼굴의 시각적 및 심리적 특성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얼굴 매력의 심층 이해-

鄭燦燮 會員(인지심리학)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며 갑갑한 마스크를 벗어 던진 지 어느덧 반년 가까이 되었다. 근 3년여간 일상화되어 마치 내 얼굴의 일부 같았던 마스크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얼굴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한동안 마스크에 가려졌던 얼굴의 사회적 영향력이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그 위력을 회복하고 있다. 얼굴은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 매듭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가? 얼굴 인식을 맡는 뇌 부위의 병변으로 얼굴 실인증(prosopagnosia)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크게 훼손되며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람들은 얼굴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며 서로 삶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든다. 그런데 이 관계망의 형성에서 모든 얼굴이 등가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불공정하게도 매력적인 얼굴은 처음부터 가산점을 받고 평범한 얼굴보다 유리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얼굴이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성격이 좋고, 유능하며, 선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얼굴에 신경을 쓰는 것은 모두 그럴 만한 대가가 있는 것이다.

내 얼굴은 매력적인가? 거울을 마주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할 물음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매일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보면서 흡은 감추고 매력은 살리려 얼굴 치장에 상당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일상적 행위는 우리 마음에 얼굴 매력의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이 보편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얼굴이 없다면 치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심리학에서 이 물음은 심리학만큼 그 역사가 오래다. 답하기 쉽지 않은 물음이다. 어

떤 사람들은 얼굴의 아름다움이 '제 눈에 안경'이며, 아예 보편적 기준이 없거나 있어도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얼굴은 나름의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주관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볼품 없는 풀꽃도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며 '너도 그렇다'라는 시구처럼 말이다. 그러나 얼굴 매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대부분은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는 편에 손을 든다.

매력적인 얼굴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해하려면 얼굴의 일반적인 시각적 특성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얼굴은 시각적으로 구조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유사하다. 그래서 얼굴이 익숙하면 구분을 잘 해도 인종이 다르다든가 등으로 생소하면 구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어렸을 적 6.25 직후 미군들의 얼굴이 모두 똑같아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한 얼굴의 이처럼 복잡한 시각적 특징을 물리적 측정치로 기술한다고 해보자. 이마에서 시작하여 눈썹, 눈, 코, 입, 턱 등 주요 세부 특징과 크기, 길이, 간격 등 그에 결부된 유관 변수를 모두 포함하면 측정 변수가 족히 30개도 넘을 것이다. 왜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이 많은 특징들의 조합을 체계적으로 바꾸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연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분석 기술로는 시각적 특징의 변수와 자유도가 한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또 설령 가능하다 해도 너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결과 해석이나 결론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얼굴의 시각적 특징과 매력의 인과성을 밝히려면 이런 방법론적 제약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근래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처리 기술은 이런 제약을 우회하여 얼굴 매력에 관한 여러 이론과 가설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 합성이나 변형을 통해 연구의 주요 개념이나 이론을 반영하는 가상 얼굴을 만들

어 직접 연구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얼굴의 시각적 특성 자체보다는 그 특성들로 인해 발현된 추상적 개념 또는 계슈탈트를 영상처리 기술로 구현하고 그것을 검증 가능 변수로 연구에 포함하는 것이다. 얼굴 매력의 ‘평균 얼굴’ 가설 검증 연구는 바로 이런 접근법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

평균 얼굴과 안정적 선별 가설

Langlois와 Roggman(1990)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의 얼굴 사진 영상을 디지털화하고 합하여 ‘평균 얼굴’을 만든 다음 사람들에게 얼굴 매력을 평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들은 이 실험에서 합성된 평균 얼굴들이 원본 사진 얼굴들보다 더 매력적이며 합성된 얼굴 수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균 얼굴이 아름답다? 과학적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다면 이에 동조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실 평균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이들이 아니고 Francis Galton이다. 그는 1878년 흉악범, 육식가, 채식가, 결핵환자 등의 전형적인 얼굴을 객관적 방법으로 알아보기 위해 중복 노출 사진 촬영으로 평균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런데 그는 흉악범의 얼굴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흉악범의 얼굴을 합성할수록 전형적인 악당 얼굴이 아니라 매력적인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Galton은 개별 얼굴의 흉악한 특징들(villainous irregularities)이 사진 합성과정에서 없어져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평균 얼굴이 왜 아름다울까? Langlois 등은 평균 얼굴이 매력적인 이유를 진화론과 인지심리학의 범주 원형(prototype) 이론과 연결 짓는다. 진화론으로 볼 때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일탈이 클수록 해로운 돌연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으며, 범주 원형(prototype) 이론으로 봐도 얼굴 인식에 필요한 범주 원형 역할을 해서 평균 얼굴이 더 친숙하고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얼굴 매력의 지향적 선별 가설

얼굴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얼굴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에 약간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 얼굴은 엄격히 말해 현실 속의 보통 사람 얼굴이 아니라 모든 얼굴의 특성을 고루 담고 있는 일종의 추상화된 범주 원형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친근하고 거부감 없는 얼굴, 평균 얼굴은 분명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매력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얼굴 매력의 전부일까? 어떤 연구자들은 진화의 압력이 평균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바람직한 유전적 특질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쏠린다는 견해를 갖는다. 이들에 의하면 얼굴 매력은 평균을 향한 안정적 선별(stabilizing selection)이 아니라 그런 바람직한 특질로 기울어진 지향적 선별(directional selection)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보통보다 도톰한 입술, 약간 짧은 하관, 깔끔한 피부, 약간 치켜 오른 광대뼈 등이 매력적인 얼굴의 특징들인데 이것들이 동시에 건강하고 다산하는 여성의 범문화적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영상처리 기술은 안정적 선별과 지향적 선별 두 대립 가설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Perrett 등(1994)²⁾은 연구에 사용된 사진을 모두 합성(morphing)한 전체 평균 얼굴과 사전 평가에서 얼굴 매력 점수가 높은 사진만을 합성한 상위 평균 얼굴을 만든 뒤 사람들에게 이 두 얼굴의 매력을 비교 판단하도록 하였다. 안정적 선별 가설에 의하면 전체 평균 얼굴이, 지향적 선별 가설에 의하면 상위 평균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상위 그룹 합성 얼굴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여 실험 결과가 지향적

1) Langlois, J. H. & Roggman, L. A. (1990). Attractive faces are only average. *Psychological Science* 1, 115 - 121.

2) Perrett, D. I., May, K. A. & Yoshikawa, S. (1994) Facial shape and judgements of female attractiveness. *Nature* 368, 239 - 242.

선별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상위 평균 얼굴을 전체 평균 얼굴의 반대 방향으로 과장한다면 얼굴 매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향적 선택 가설의 예측에 의하면 이 과장된 얼굴은 원래의 상위 평균 얼굴보다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 방향을 향해 진화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영상 변형(warping) 기술을 이용하여 상위 평균 얼굴과 전체 평균 얼굴의 차이를 내고 상위 평균 얼굴을 그 차이의 50%만큼 전체 평균 얼굴의 반대 방향으로 과장했다. 예를 들어, 눈의 가로 폭이 전체 평균 얼굴은 2cm, 상위 평균 얼굴은 2.2cm이면 상위 50% 과장 얼굴에서는 그것을 2.3cm로 늘리는 식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상위 평균 얼굴보다 상위 50% 과장 얼굴이 유의미하게 더 매력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 평균-상위 평균’과 ‘상위 평균-상위 50% 과장’의 두 실험 대결에서 지향적 선별 가설이 안정적 선별 가설에 한판승을 거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남자와 여자, 유럽인과 일본인의 얼굴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 이들은 이런 현상이 남녀 보편적이며 범문화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국내에서도 이들의 실험을 반복 검증한 연구³⁾가 수행된 적이 있는데 그림 1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평균 얼굴, 상위 평균 얼굴, 상위 50% 과장 얼굴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평균, 상위, 상위 50% 과장 순으로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는 반응을 보여 Perrett 등의 실험 발견이 재 확인되었다. 그림 1을 보면, ‘제 눈에 안경’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것이 과연 지향적 선별 가설의 확고한 지지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매력적인 얼굴은 평균 얼굴과 구분되는 독특한 시각적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감성공간 모형을 통해 본 얼굴 유형

사람들은 얼굴 인상을 표현할 때 ‘따뜻하다, 차다, 부드럽다, 날카롭다, 앳되다, 성숙하다, 귀엽다, 청순하다...’ 등등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그만큼 얼굴 느낌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얼굴 매력은 이런 감성적 느낌들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심리적 결과물일 수 있다. 박수진 등(2001)⁴⁾은 얼굴의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들로 2차원의 감성 공간 모형을 만들고 그 공간의 좌표값에 상응하는 합성 얼굴로 감성 어휘를 대치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이 사용한 감성 공간 모형의 두 차원은 ‘앳되다-성숙하다’ 차원과 ‘부드럽다-날카롭다’ 차원이었다. 이 두 차원은 얼굴 느낌을 나타내는 26개 어휘의 의미 유사성을 요인 분석하여 찾아낸 제1, 제2 주성분 요인(principal component factor)이다. 그림 2는 이 감성 공간에 분포된 9개의 합성 얼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중앙의 원점과 두 차원의 극단 값에 있는 4개의 얼굴은 연구 참여자들이 평가한 차원값을 토대로 해당 좌표에 인접한 사진들만을 골라 합성한 것이다. 따라서, 각 차원의 값이 -1에서 1 사이에 분포한다면, 전체 평균 얼굴은 (0, 0), ‘앳되다’ 축 상의 얼굴은 (1, 0)에 가까운 사진 표본들만 골라 합성한 것이다. 각 사분면의 대각선상(A, B, C, D)의 네 얼굴은 좌표 인근에 분포한 사진 표본이 많지 않아서 직교하는 차원의 극단 값 얼굴 둘을 합성한 것이다. 즉, 얼굴 A는 ‘앳되다’와 ‘날카롭다’의 합성 얼굴을 재합



그림 1. 전체 평균, 상위 평균, 상위+50% 얼굴. 합성에 사용된 얼굴 사진은 연세대학교 학부생들로부터 수집되었다. ‘전체 평균’은 얼굴 사진 모두를 합성(morphing)한 것이고, ‘상위 평균’은 사전 매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진들만 골라 합성한 것이다. ‘상위+50%’는 ‘전체 평균’과 ‘상위 평균’의 차이를 ‘상위 평균’ 쪽으로 50% 과장하여 ‘상위 평균’ 얼굴을 변형(warping)한 것이다.

3) 김한경, 박수진, 정찬섭. (2004). 아름다운 얼굴의 감성적 특징. 감성과학, 7(1), 23-28.
4) 박수진, 한재현, 정찬섭. (2001). 한국인 20대 여성의 감성 모형. 감성과학, 4(2), 47-55.

성하여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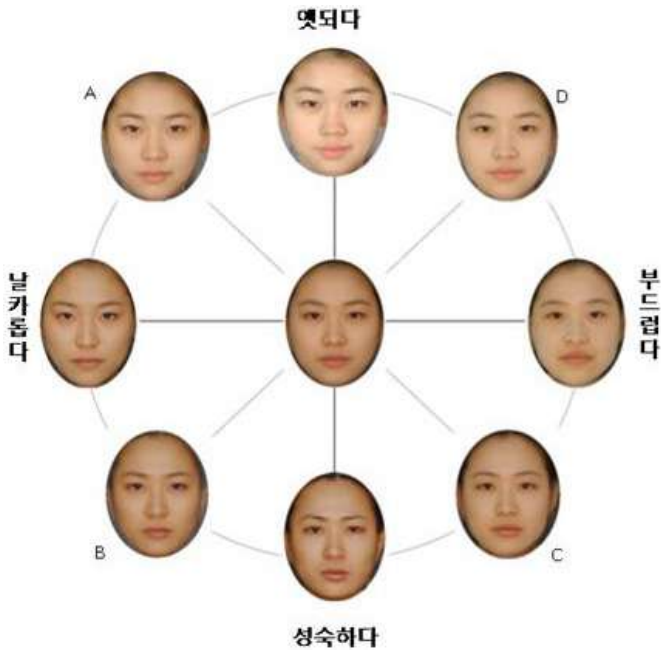



그림 2. 두 차원의 감성 공간에 매핑된 합성 얼굴. 이 얼굴들은 연세대학교 학부생들로부터 수집한 사진 표본과 젊은 배우의 사진을 3:1의 비율로 섞어 각 얼굴이 위치한 영역의 사진 표본들을 모아 합성한 것이다.

요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향의 얼굴이 때아닌 시뻐 거리다. 남원의 사당에 걸린 춘향의 영정 그림 이야기다. 억대를 들인 영정 얼굴이 10대가 아니라 40대로 보인다고 야단이다. 그림 2로 말하자면 ‘성숙하다’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춘향은 어떤 얼굴일까? 옛되지만 절개 있고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다면 옛됨과 날카로움이 반반 섞인 그림 2의 얼굴 A가 제1 후보로 떠오른다.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심리학자들의

얼굴 연구는 이처럼 생각보다 쓸모가 많을 수 있다. 심리 영역의 개념을 시각 영역의 개념으로 치환해줌으로써 아름다움, 부드러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맺는말

얼굴이 사회적 관계망의 연결 매듭이란 것은 빈말이 아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부분은 이름과 함께 얼굴 영상을 연결 매듭으로 쓸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얼굴이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단축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Facebook’이나 ‘Face Time’은 아예 이름에 ‘얼굴’을 달고 있다. 얼굴 영상은 보는 순간 즉각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밉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에 얼굴 영상을 올리는 문제로 고민하거나 신경 쓴 경험이 있을 것이다. 노인 대부분이 앱이나 기기의 기본 설정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아마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결정일 것이다. 지금 세상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회관계망이 확장되면서, 싫든 좋든 얼굴이 널리 공개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과 함께 아름다운 얼굴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 전 전문 학술서적에 버금가는 얼굴 매력에 관한 책⁵⁾이 교양서적으로 널리 읽힌다는 것을 알고 놀란 적이 있다. 이런 추세와 무관치 않은 현상일 것이다. 

5) 최훈(2021). 왜 얼굴에 혹할까. 블랙피쉬.

[회원기고]

피톤치드가 건강에 좋은가?



安鎮興 會員(식물분자유전학)

나무가 울창한 숲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진다. 나무에서 나오는 숲의 향기 때문이라고 한다. 식물이 내뿜는 향기를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향기에 들어 있는 물질이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 이외에도 풀을 베었을 때 나오는 신선한 냄새, 민트 잎을 만졌을 때 나는 산뜻한 향기, 꽃과 과일 향기 등에도 다양한 피톤치드가 들어있다. 피톤치드가 정말로 건강을 좋게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

1928년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보리스 토크인(Boris Tokin) 박사가 식물이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물질을 피톤치드(phytoncide)라고 이름 지었다. 피톤치드는 ‘식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huton과 ‘죽이는 물질’을 의미하는 라틴어 cide를 합쳐서 만든 단어이다. 즉 식물에서 만든 죽이는 물질이란 뜻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단일 물질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물질의 복합체이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휘발성 2차대사산물인 테르펜류 물질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 외에도 페놀화합물, 알칼로이드 성분, 글리코시드, 페닐프로판, 스테로이드 등 5천 종류 이상의 피톤치드가 알려졌다. 피톤치드는 자기방어 이외에도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여 광범위한 뜻으로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라고 하고, 이를 정제한 것을 정유(essential oil)라고 부른다.

피톤치드의 종류

피톤치드는 잎이나 줄기, 뿌리, 꽃, 또는 열매에서 독특한 냄새를 내는 휘발성 물질이다. 대표적인 피톤치드는 탄소 5개를 가지고 있는 이소프렌(C₅H₈) 및 이의 배수로 이루어진 화합물(C₁₀H₁₆, C₁₁H₁₈, C₁₅H₂₄, C₁₆H₁₆)로 탄소의 수가 10~16개 되는 사슬 또는 고리 모양의 테르펜류 화합물이다. 그밖에 알칼로이드 및 글리코사이드 등도 포함된다. 또한 메탄올(CH₃OH)과 아세트알데하이드(CH₃CHO)와 같이 탄소가 하나나 둘로 구성된 화합물도 있으며, 탄소 6개 지방산의 일종인 초록 잎휘발성물질(green leaf volatile)도 있다. 벤젠 고리를 가진 벤제노이드 화합물 및 다양한 페닐프로파노이드 물질도 식물에서 대기 중으로 증발하여 각가지 기능을 한다. 그 외에 페닐알라닌에서 유도된 다양한 피톤치드가 있다. 이 물질들의 공통점은 C=C 이중결합을 가지며, 전자밀도가 높고, 쉽게 산화되며, 양이온을 중합하기 쉽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피톤치드 양은 매년 10억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0% 정도가 이소프렌이며, 탄소 1~2개로 구성된 메탄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리고 탄소 10개로 구성된 피넨(pinene), 카렌(carene), 리모넨(limonene) 등의 모노테르펜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탄소 20개로 구성된 테르펜 및 기타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피톤치드는 대부분 숲에서 생기는데, 테르펜의 약 80% 및 테르펜 이외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50%가 열대우림에서 생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과, 녹나무과, 운향과 등의 목본식물에서 많이 나오며, 초본식물에서는 꿀풀과와 국화과 식물이 많다. 약 5천 종류의 피톤치드가 알려졌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존재

할 것으로 추측한다.

숲속 대기 중의 피톤치드 함량을 측정하면 3.5~56 $\mu\text{g}/\text{m}^3$ 정도의 테르펜이 검출되는데 그중 반 정도가 이소프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모노테르펜으로 농도는 0.4~45 $\mu\text{g}/\text{m}^3$ 이다. 우리나라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림에서 배출되는 주된 피톤치드는 피넨, 리모넨, 카렌, 시멘(cymene), 캄펜(camphene), 사비넨(sabinene), 미르센(myrcene), 테르피넨(terpinene), 펠란드렌(phellandrene) 등의 모노테르펜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피넨과 리모넨이 가장 흔하다. 중부 스웨덴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피톤치드는 피넨과 카렌이었으며 그 다음은 리모넨, 펠란드렌, 캄펜, 사비넨 순이었다. 한편, 활엽수림에서는 주로 이소프렌이 많이 나온다. 전 세계 숲에서 방출되는 모노테르펜은 연간 3.3~4.8억 톤 정도이며, 초록잎휘발성물질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다른 주요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2.6억 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숲에서 만들어지는 피톤치드는 식물이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항상 방출하는 것들과 외부의 공격이나 자극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테르펜과 페닐프로파노이드 물질은 항상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며, 초록잎휘발성물질 및 페닐알라닌에서 유도된 피톤치드 등은 곤충이나 동물의 공격을 받을 때나 비생물적 자극으로 생산된다. 물리적인 자극으로 식물이 방출하는 주요 피톤치드는 알데하이드, 알코올 등의 초록잎휘발성물질이며, 고온 스트레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초록잎휘발성물질이 방출된다.

수목의 종에 따라 다른 피톤치드가 배출된다. 국내의 숲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 종류가 활엽수보다 피톤치드를 더 많이 방출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탈리아의 북부 아펜니노 산맥에서는 소나무 종류의 숲이 너도밤나무 숲보다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생산했다. 그러나 양평에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측정한 결과 활엽수림에서 더 많은 피톤치드가 방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강원도 제왕산 소나무 숲과 전라남도 축령산 편백 숲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양

의 피톤치드가 검출되었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숲에서 모노테르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함량은 침엽수림에서 높았으며 특히 피넨의 함량이 높았지만, 활엽수림에서는 펠란드렌 함량이 침엽수림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숲의 조성 형태나 위치에 따라 피톤치드 방출량 및 종류가 다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소나무 숲에서 연중 피톤치드 함량을 비교하면 6월에 3 $\mu\text{g}/\text{m}^3$ 정도로 가장 많았고 5월 및 7~11월에는 1 $\mu\text{g}/\text{m}^3$ 정도였으며 겨울철에는 평균 0.3 $\mu\text{g}/\text{m}^3$ 정도로 매우 낮았다. 여름철 소나무 숲을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피톤치드 종류에 따라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오전에는 낮은 농도로 유지되다가 정오경에 상승하여 오후로 가며 점차 증가하여 일몰(20~21시) 시각에 가장 높았다.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에 있는 숲에서 8월부터 10월까지의 피톤치드 방출량을 보면 8월에는 오후 3~5시에,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오후 1~3시경에 가장 많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었다. 스페인의 북동부에 있는 참나무 숲에서 모노테르펜을 6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한 결과 7월과 8월에 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 기간에는 오전 6~8시 사이 및 오후 1~3시 사이에 총 모노테르펜 함량이 높았다. 반면 9월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슷한 양의 모노테르펜이 검출되었는데, 오후가 오전보다 조금 높았다. 가장 크게 테르펜 농도를 조절한 것은 대기 온도와 태양광이었으며 바람의 방향과 속도, 상대습도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피톤치드 함량이 높으나 숲의 종류에 따라 최고치를 이루는 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톤치드 농도는 오후가 오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나무의 종류나 계절에 따라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시간대가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산림욕의 생리활성 작용

피톤치드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드는 2차대사산물로 병원균이나 해충 또는 초식동물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알려졌다. 그 외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

는 제초제 역할을 하고, 천적을 불러들여 해충을 공격하게 한다. 또한, 곤충이나 동물을 끌어들여 수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식물이 자신의 방어나 생존을 위해 방출하는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숲에서 삼림욕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만성 뇌졸중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휴양림에서 지내고 다른 그룹은 도시의 호텔에서 생활을 한 후 분석한 결과, 숲에서 지낸 환자들의 우울증 및 불안감 수치가 많이 감소하였다. 서울시에서 건축과 설비 관리에 종사하는 6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한 결과 2일간 양평에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숲 체험을 한 사람들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의 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통증과 우울증이 감소하였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39곳의 숲에서 505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후 조사한 결과 테르펜 농도가 높은 숲에서 지낸 사람들에서 불안감이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숲에서 나온 알파피넨 농도와 체험자의 우울증 감소 정도가 정비례하였다.



소나무 숲

일본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하였는데, 숲을 걸으면 자연살해세포가 활성화되고 항암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37~55세 남자 12명이 2박 3일간 숲을 방문하여 2시간씩 숲을 걸은 후 혈액을 채취하여 검

사한 결과 11명에게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약 50% 정도 증가하였으며, 자연살해세포 숫자 및 항암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였다. 숲을 방문한 지 7일 후에도 자연살해세포가 높은 활성도를 유지하였다. 13명의 25~43세 여성이 비슷한 숲 체험을 한 후에도 앞서 남성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숲 체험이 혈압을 낮춘다는 결과도 있다. 평균연령이 58세인 2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휴양림과 도심지에서 같은 속도로 걸으며 측정한 결과 숲에서 걸은 사람들의 혈압이 도심지에서 걸은 사람들보다 낮았다. 평균연령 62세인 1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숲에서 지낸 후 측정한 결과 맥박이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다.

중국에서 심장혈관계 질병을 앓고 있는 60~75세 24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실험을 한 결과 숲에서 7일간 지낸 환자들의 심장질환 관련된 다양한 수치가 감소하였다. 유사한 결과가 리투아니아에서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도 관측되었다.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도시에 있는 공원이나 복잡한 도시 길을 7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걷게 한 후 비교한 결과 공원을 걸은 그룹에서 혈압과 심장박동 수가 현저히 낮아졌다. 일본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48명 환자의 혈액 내 혈당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삼림욕을 한 환자들의 혈당이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피톤치드가 몸에 좋은가?

삼림욕을 하면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축적되는지 알기 위하여 침엽수림을 60분 거닌 후 혈액 속에 들어있는 모노테르펜 함량을 측정한 결과 피넨, 펠란드렌, 리모넨 함량이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피넨의 혈중 농도는 숲을 걷기 전 평균 2.6 nM에서 숲을 걸은 후 평균 19.4 nM로 약 7배 증가했다. 흡수된 피넨과 리모넨은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소변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되었다고 보고했다.

피톤치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 남부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는 편백에서 추출한 정유로 실험한 결과 항산화 능력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손상이나 사멸을 유도하여 노화, 염증, 파킨슨병, 치매, 암 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성산소에 의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합성 항산화제가 이용되고 있으나 합성 항산화제는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편백을 이용한 천연 항산화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편백 잎에서 추출한 정유에는 주로 테르펜류의 피톤치드가 들어있는데 항산화 능력 외에도 다양한 병원균 및 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밝혀졌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피톤치드를 분석하였더니 피넨이 대장균 등 다양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피톤치드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에 대해 살균작용을 보였다. 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하는 용액에 편백이나 화백 줄기에서 뽑아낸 정유를 넣으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이 높아졌으며, 표적 세포를 죽이는 효소들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피톤치드의 효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실험용 쥐가 이용되었다. 삼림욕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침엽수에서 많이 방출되는 알파피넨이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쥐에 알파피넨을 흡입시킨 후 분석한 결과 뇌와 간에서 알파피넨이 검출되었으며 항불안 활동이 향상되었다. 소나무에서 추출한 방향유의 주요 성분인 카렌도 항불안제 역할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 잣나무와 화백 정유를 투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쥐에서 알파피넨은 가바벤조디아제핀(GABA_A-benzodiazepine, BZD)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침엽수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카렌을 실험쥐에 구강으로 섭취시키면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이 쉽게 들었으며, 염증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카렌은 가바 수용체의 벤조디아제핀 부위에 결합하여 시냅스 반응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졌다. 침엽수에서 발산하는 세드롤을 흡입시키면 우

울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도파민 수치 및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관찰되었다.

맺는말

숲에 들어가면 녹색으로 가득한 식물을 보고 새와 물소리를 듣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신이 안정되기 때문에 삼림욕에 의한 건강 증진 효과가 피톤치드에 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나무에서 추출한 정유나 분리된 테르펜을 사용하여 미생물이나 실험쥐에서 효능을 검증해보았으나, 대부분은 처리 기간이 길었고 숲속의 자연 상태보다 높은 농도를 처리하였다. 미생물이나 동물에서 실험한 결과가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보고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흡입하면 인간의 건강에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숲을 거니는 것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

〈참고문헌〉

- 박미진, 최원실, 민병철, 김호용, 강하영, 최인규. 2008. 편백 정유의 항산화활성. 목재공학. 36: 159-167.
- Kim W, Lim SK, Chung EJ, Woo JM. 2009. The effect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based psychotherapy applied in a forest environment on physiological and remission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Psychiatry Investigation 6: 245-254.
- Li Q, Morimoto K, Kobayashi M, Inagaki H, Katsumata M, Hirata Y, Hirata K, Suzuki H, Li Y, Wakayama Y, Kawada T, Park BJ, Ohira T, Matsui N, Kawaga T, Miyazaki Y, Krensky AM. 2008. Visiting a forest, but not a city, increases human natural killer activity and expression of anti-cancer proteins. Int. J. Immunopathol. Pharmacol. 21: 117-127.
- Michele A, Davide D, Grazia B, Marco V, Valentina M, Fabio F. 2017. Forest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their effects on human health.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7: 6506.
- Hansen MM, Jones R, Tocchini K. 2017. Shinrin-Yoku (forest bathing) and nature therapy.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4: 851.

[분과 및 학계 동향]

한글 전용,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인사 제2분과 회원들의 최근 업적을 돌아보는 가운데 짚어 보는 쟁점 하나-

張敬烈 會員(영문학)



기초, 논의에 앞서

어쩌다 보니, 필자는 대한민국 학술원 인사 제2분과의 “분과 및 학계 동향”을 정리하여 『학술원 통신』에 보고하는 소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 소임을 맡은 필자는 그동안 인사 제2분과의 전문 영역인 어문학계 전체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쟁점을 찾아 논의를 시도했다. 지난 2021년에는 “어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 아래 어문학 연구에서 ‘이론’에 대한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및 실증적 학문 연구로의 회귀 경향을 논의 주제로 삼았으며, 2022년에는 “누가 언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 아래 인문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인 ‘언어’ 그 자체—즉, 어문학 연구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주제인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어제와 오늘날의 논란 및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짚어 보았다.

요컨대, 어문학 연구가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 영역과 분야에서 경계 안쪽에서든 경계 바깥쪽과 연계해서든 진행되는 다채로운 논의들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식의 작업은 삼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의 종합적인 흐름을 잡기보다 일종의 잡다한 쟁점들 나열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분과 소속 회원 한 분 한 분께 분야마다 자문을 구한 다음 가능한 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조망을 시도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 여러 어른을 귀찮게 할 것 같아, 또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은 채 학문적 의견들을 수합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망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엄청나게 전문화된 다양한 어문학 각 분야의 ‘동향’에 대한 다채로

운 논의들을 하나의 지평에서 아우르는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필자의 역량 부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글의 성격을 달리하여 분과 내 회원들의 활동을 정리 및 소개하는 쪽으로 글의 가닥을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이는 일종의 ‘회원 동정’을 정리하는 작업은 필지언정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어문학 분야의 흐름이나 쟁점을 논의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필자는 “분과 및 학계 동향”이라는 기고란寄稿欄의 명칭이 “분과 동향”이든, “분과 회원 동정”이든, 또는 “학계 동향”이든, “학계 쟁점”이든, 논의의 초점을 쉽게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간명한 쪽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아무튼, 그동안 “분과 및 학계 동향”에 대한 필자의 기고문을 접한 인사 제2분과 회원 한 분께서 ‘분과 동향’까지 아우르는 논의가 이롭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지난 2021년에 시작하여 매년 1회씩 “분과 및 학계 동향”을 보고하는 소임을 마감하는 자리인 만큼, 그와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2021년 이후에 발간된 회원들의 저서에 초점을 맞춰 ‘분과 동향’에 대한 보고를 앞세우고자 한다.

승承, 인사 제2분과 회원들의 최근 업적을 돌아보며

지난 2022년은 학술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문학계 전체가 크나큰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던 해로, 그해 3월 인사 제2분과 최고의 원로이시자 정신적인 지주이시던 정명환 회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하지만 정명환 회원께서는 바로 전해인 2021년 여름에 기념비적 업적을 출간하셨는데, 이는 바로 오랜 세월 끈질긴 독서와 사색, 분석과 성찰을 선보이는 그야말로 역저力著인 『프루

스트를 읽다』(현대문학, 2021)이다. 마치 제2분과의 슬픔은 정명환 회원의 귀천만으로 모자라는 듯, 그해 8월에 또한 분의 인사 제2분과 원로이시자 정신적 지주이시던 이경식 회원께서 정명환 회원의 뒤를 따르셨다. 슬픔은 겹으로 온다는 말을 새삼 절감하는 동안, 필자는 이경식 회원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일생의 과제로 삼으셨던 셰익스피어 연구를 정리하는 내용의 저서에 대한 집필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을 새삼 기억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프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그 저서와 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갑작스레 연이어 일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인사 제2분과의 저술 활동은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 먼저, 김학주 회원께서는 연전에 “학술원 학술연구총서 제13권”으로 선보이신 『조조신론』을 새롭게 다듬어 2021년에 『조조의 재발견』(연암서가)으로 출간하셨다. 이 저서를 통해 김학주 회원께서는 ‘간웅奸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국의 역사적 인물인 조조曹操에 대한 인간적, 문학적, 정치적 평가를 바로잡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이로써 우리는 조조가 얼마나 탁월한 시인이자 통치자였던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인물의 문학적 또는 정치적 업적에 대해 참신하고도 창의적인 새로운 조명과 조망을 통해 이른바 인식의 전환을 가능케 한 김학주 회원의 저서는 인문학 연구의 정도正道를 보여 준 쾌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매년 거르지 않고 저서 발간을 이어 오실 만큼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고 계신 조동일 회원께서는 2021년에 『우리 옛글의 놀라움』(지식산업사)을, 2022년에 『국문학의 자각 확대』(지식산업사)를, 2023년에 『한일 학문의 역전』(지식산업사)을 연이어 발간하셨다. 『우리 옛글의 놀라움』에서 “우리 옛글”이란 한국인이 창작하고 향유하던 ‘한국의 한문학’을 말한다. 실로 우리 민족의 문학 유산에는 한글로 이루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은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도 한문학 창작과 향유는 줄기차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결코 우리의 소중한 문학 유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동일 회원께서는 ‘한국의 한문학’에 대한 꼼꼼

하고도 친절한 독해 작업을 수행하셨다. 우리의 문학 유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우리 옛글의 놀라움』은 일독—讀해야 할 소중한 저서다.

한편, 『국문학의 자각 확대』는 서울 과기대의 신연우 교수가 가늠했듯 “저자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문학과 철학 연구에 천착한 평생의 성취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동일 회원의 제안대로, 그가 말하는 “국문학의 자각 확대”는 연구의 ‘밖’에서 ‘안’으로, ‘크게 말하고 작게 따지는 쪽’으로, 그리고 ‘마당’—즉, “탁상의 문학론에서 현장의 예술론”—으로 시선을 돌리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든, 그가 자신의 논의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이론적 화두는 ‘생극론生劇論’—신연우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음부터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입장—으로, 이에 바탕을 둔 이 저서는 조동일 회원의 표현대로 일종의 학문적 “도발”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동일 회원께서 올해인 2023년 초에 발간하신 『한일 학문의 역전』은 한국의 학문과 일본의 학문 사이의 비교 우위를 논제로 삼은 저서다. 그의 논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은 ‘수입학’과 ‘창조학’으로, 한국의 학문이 일본의 학문을 앞서기 위해서는 ‘유럽 문명 배우기’와 같은 ‘수입학’에서 벗어나 ‘창조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문학사”의 영역에서 한국은 “스스로 해명하는 창조학을 하려고 고심해 왔”고, 그 결과 한국의 문학사 연구는 “선진이 후진이고 후진이 선진에게 하는 선후 역전의 좋은 본보기”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저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도 앞서 말한 ‘생극론’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동일 회원께서는 “일본도 수입학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학에 힘써 한국과 동행하기를 기대한다.” 그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이견과 반론이 제시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생극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수입학’과 ‘창조학’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남의 것을 익히고 배우는 일과 자기 것을 정립하는 일은 동시에 가능한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느 한 면으로 기울어 ‘하나’인

것을 ‘돌’로 나누고 있는 것이 그의 논리는 아닐지?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조동일 회원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학술 활동을 이어 오시는 이정민 회원께서는 2021년에 “학술원 학술연구총서 제24권”인 『영한 화용론과 의미론』을 발간 하셨다. 그에 따르면, 이 저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기초를 닦기 위해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영어 자료와 한국어 자료 및 필요한 그 밖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해 꾸민 책”이다. 몇몇 예외적인 장치가 있긴 하지만, 이 저서를 이루는 각 장의 말미에는 “연습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언어학도들에게 일종의 교과서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학의 핵심 분야에 속하는 화용론과 의미론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한 이정민 회원의 이번 저서 『영한 화용론과 의미론』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언어학 연구에 하나의 귀감이 될 것이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조주관 회원께서도 두 권의 저서 발간을 통해 왕성한 학문 활동을 이어 오셨다. 먼저 2022년에 발간한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한 그림들』(아르테)은 평소 우리가 문학만을 통해 알고 있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대단한 미술 애호가였는가의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한다. 조주관 회원의 재치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도스토옙스키는 독자적인 ‘미술관美術觀’을 지닌 뛰어난 예술 평론가이자 그의 작품 세계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美術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조주관 회원의 저서 역시 도스토옙스키의 폭넓고 깊이 있는 미술관美術觀에 바탕을 둔 또 하나의 아름답고 풍성한 미술관美術觀이다.

곧이어 조주관 회원께서는 2023년 초에 『러시아 문학의 넓이와 깊이』(세창출판사)라는 러시아 문학 연구서를,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깊이와 넓이가 엄청난 묵직한 저서를, 말 그대로 대작을 선보이셨다. 실제적으로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 문학의 넓이와 깊이』는 “작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문학 텍스트의 내적·외적 특성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예사로운 문학 연구서에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돋보이는 저서다. 평범하고 뻘한 내용의 작가 소개와 작품 소개의 차원

을 벗어나 주목할 만한 작가의 주요 작품 세계에 대한 깊고 넓은 천착을 18세기, 19세기, 20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어 가고 있는 조주관 회원의 『러시아 문학의 넓이와 깊이』는 단순히 러시아 문학 전공자나 애호가를 위한 연구서만이 아니다. 문학의 보편성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 보아야 할 교양서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에 새롭게 회원으로 합류하신 김인환 회원께서도 그해에 소중한 의미 있는 저서를 출간하신 바 있는데, 이는 바로 『새 한국문학사』(세창출판사)다. 아마도 또 한 편의 예사로운 ‘한국문학사’일 수도 있었던 김인환 회원의 저서를 예사롭지 않게 한 것은 “문학사는 기억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내려가면서 서로 상충되는 이질적 원리들이 하나의 문학 시대에 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이해가 자리 잡은 곳에 이해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연구 분야”라는 자각과 “기억의 계단을 더 멀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국문학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에 주제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찾아냄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쇄신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희망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믿음일 것이다. 이 같은 자각과 믿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김인환 회원의 『새 한국문학사』는 문학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 이 저서를 통해 문학도들이 한국 문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배울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학술원 인사 제2분과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필자도 2021년에 『김중철 시인의 ‘언어 학교’를 찾아서』(문학수첩)라는 평론서와 *One Hundred Modern Sijo Poems from Korea*(도서출판 들꽃)라는 번역서를 출간했다. 이어서 2022년에는 T. S. 엘리엇의 저서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에 대한 번역본을 『성스러운 숲—시와 비평에 관한 논고』(화인북스)라는 번역서로 출간한 바 있다.

전환, 일화 한 편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인사 제2분과 회원들의 저서를 탐독하는 과정에 마주

하게 된 인상 깊은 구절들이, 마음에 느낌표를 찍게 할 만큼 참신한 논의들이, 기억에 남아 수시로 떠올리게 된 의미 깊은 화제話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는 어떤 방향에서 ‘학계 동향’—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학계 쟁점’—을 논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던 필자에게 하나의 길을 제 공한 일화逸話가 있다. 이는 조동일 회원의 『국문학의 자 각 확대』의 251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東文選』과 흡사한 한문학 작품집 『李陳詩文』이 월 남에 있다. [중략] 『李陳詩文』 제1권은 파리7대학 월남학과 에 있는 것을 복사한 다음, 제2·3권을 구입하려고 파리 주 재 월남 국영서점에 들렀을 때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 ‘李陳 詩文’이라고 한자로 쓴 글씨를 내보이자, 아래와 같은 대화 가 오갔다.

“이 책이 있는가?”

“우리는 일본 책을 팔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 책이 아니고, 당신네 나라 월남 책이다.”

“우리는 그 글자를 읽지 못한다.”

“글자를 읽지 못해도 볼 줄은 아니, 이런 글자가 있는 책 이 있으면 다 내놓아라.”

한문 고전을 자랑하는 나라 월남이 오늘날에는 한문 교육 을 하지 않아 파리에 파견되어 자기네 책을 파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다.

조동일 회원께서 위의 일화에 앞서 논의하신 바 있지만, 베트남—조동일 회원의 일관된 표현법에 따르면 ‘월 남’—에서는 로마자를 활용한 베트남어 표기법이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다. 이 표기법은 16세기 전반부터 사용되 기 시작한 것으로, 이전에는 한자를 이용한 베트남어 표 기법인 ‘쯔놈[字喃]’이 있었다. 그런데, 로마자를 활용한 표기법에 밀려 쯔놈은 아예 그 세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 하여, 위의 일화가 보여 주듯, “파리에 파견되어 자기네 책을 파는 [국영서점의] 사람들”까지도 한자로 된 텍스 트들은 아예 자기네들의 언어생활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 각하게 된 것이다. 아무튼, 한자나 로마자에 기댄 표기 법이라니! 베트남의 그와 같은 언어 현실을 떠올리다 보 면, 다음과 같은 생각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한

다. 만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표기법 또는 문자 체계는 어떤 것이 되었을까! 혹시 베트남의 쯔놈이나 역시 한자에서 파생된 일본의 ‘히라가나[ひらがな]’나 ‘카타카나[カタカナ]’에 상응하는 표 기법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베트남처럼 로마자를 활용한 표기법에 만족해야 했던 것은 아닐지? 세계 어디 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언어학적으로 완벽 한 문자 체계 또는 표기법으로 널리 알려진 자랑스러운 한글이 있기에, 우리의 언어생활은 그만큼 편리하고 자 연스러우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리라.

바로 이 자랑스러운 한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 게는 표기 관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한글 전용’이나 또는 ‘국한문 혼용’이 나의 문제로, 일각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시각을 확인케 하듯, 2000년대 이후에는 한글 전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신문이나 잡지나 교양서 등 일반 출판물을 찾아보기란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 학술지나 학술 서적에서도 한글 전용은 일반적 추세가 되어 있다. 물론 한자 또는 한자 표현을 한글 뒤에 병기하는 예야 적지 않지만, 한자나 한 자 표현 자체를 문장 속의 독립적인 어휘로 글에 동원하 는 이른바 국한문 혼용체의 예는 극히 드물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한문 혼용체의 예는 1580년에 창 작된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확인되기도 하지만,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본격적인 국한문 혼용의 시대 가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새로운 표기법 시대를 대표하는 저작물 가운데 하나가 1895년에 출간 된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일 것이다. 하지만 국한문 혼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던 그 무렵부터 끊임없이 제기 되고 이어져 왔던 것이 한글 전용의 논리다. 마침내 1970년에 이르러 한글 전용은 국가 정책의 하나가 되었 는데, 그 무렵에도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측과 국한문 혼 용을 주장하는 측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아마도 양측을 대표하는 논저가 최현배 교수의 『한글만 쓰기의 주장』(정음사, 1970)과 남광우 교수의 『현대국어국

자現代國語國字의 제문제諸問題(일조각, 1970)일 것이다. 논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국한문 혼용의 관례는 그 세력을 잃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글 전용이 차츰 힘을 얻어 앞서 말했듯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글 전용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이상, 이제 한글 전용이나 국한문 혼용이나의 문제는 더 이상 어문학계의 논쟁거리도 아니고, 학계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론할 성질의 논제도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글 전용이 실질적인 추세가 되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완결되었다거나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거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어문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문 교육 자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문 교육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글 전용이나 국한문 혼용이나의 문제는 미래 세대의 정신세계 형성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잠재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Die Grenzen meiner Sprache sind die Grenzen meiner Welt)라는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언명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어문 교육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고 사물을 묘사하는 방법과 기술을 터득케 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찌 보면, 정신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창조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유세계의 영역을 넓히고 또한 정신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도구 습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문 교육일 수 있다.

논의가 지나친 관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글 전용이나 국한문 혼용이나의 문제가 어문 교육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로 하자. 무엇보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의무 교육 과정에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방기放棄되고 있는 한자 교육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 지난 1970년 한글 전용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와중에 한자 교육 자체가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 한문 교육이야 언감생심 입 밖에 내놓을 수조차 없었겠지만, 한자 교육마저 폐지되자 엄청난 반발의 함성이 여기저기서 일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재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축소됨으로써 이에 발맞춰 한자 교육이 실질적으로 포기되거나 등한시되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경향은 한글 전용의 시대를 앞당기는 데 나름의 기여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축소되긴 했으나 한자 교육과 한문 교육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공통 과목’—즉, 필수 과목—인 국어의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 쫓겨나 ‘선택 과목’인 한문의 영역에서 그나마 자리를 보전하는 초라한 형편이 된 것이다 다를 뿐이다. 사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문 및 한자 교육은 필수 과목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살아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는 이른바 ‘공통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된 것이다. 요컨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한자나 한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없더라도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한자 교육 찬반 논쟁이 어떤 형태로 이어지든 이와 관계없이 조동일 회원에서 우려하신 베트남의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예컨대, 한국학을 연구하는 어떤 외국인 학자가 한국의 고전인 『동문선東文選』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현지의 한국학 관련 전문 서점—“국영서점”이 따로 있을 수 없기에 억지로 떠올린 가상의 서점—을 찾아가서 ‘東文選’이라고 한자로 쓴 글씨를 내보였다 하자. 아마도 그 외국인 학자는 ‘우리는 중국 책을 팔지 않는다’는 투의 단호한 답변과 마주할 수도 있겠다. 이에 그가 ‘이것은 중국 책이 아니고, 당신네 나라 한국 책’이라고 말했다 하자. 그는 필경 다음과 같은 통명스러운 말을 듣기 십상일 것이다. ‘우리는 그 글자를 읽지 못한다.’

필자는 한글 전용이 궁극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 해서 대세를 거슬러 국한문 혼용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그 방면의 문화적 또는 학문적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예컨대, 서점 운영자—라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엄청난 양의 한문 텍스트들을 인지할 만큼의 한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은 갖춰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런 소양을 키우는 데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자 교육이 크나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단순히 일부 학문 분야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 모든 초중고등 학생들이 한자나 한문 교육을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필자가 최소한의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것은 단연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말의 어휘나 표현에 한자와 나아가 한문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한자나 한문에 대한 지식은 우리말 자체에 대한 깊이 있고 넓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을 계속 들먹일 수도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초중고등 학생 모두에게 공통 과목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의 눈길을 바깥쪽 세계의 언어로 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명분이다.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해도, 이에 상응하는 눈길을 우리 고유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인 안쪽의 언어로 돌리는 작업도 균형 감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필자가 한자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내실화라는 지극히 소박한 주장을 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요란하게 드러나 있지 않을지 몰라도,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한자 교육과 관련된 논쟁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니와, 이로 인해 넓은 의미에서의 ‘학계 동향’에 눈길을 주는 자리에서라면 한자 교육은 마땅히 거론 가능한 쟁점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적어도 어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인 것이다.

결結, 논의를 마감하여

다시 인사 제2분과의 ‘분과 동향’으로 돌아가 회원들이 최근에 출간한 저서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이른바 한글 전용으로 집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적

지 않은 경우, 추측건대 우리말 표현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만, 간간히 우리말 어휘 옆에 이에 상응하는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학문 세계에서 확인되는 글쓰기의 대세일 것이다. 바로 이 ‘대세’를 따르고 있는 것이 김학주 회원, 이정민 회원, 김인환 회원의 저서와 필자의 우리말 출간물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저서에서 확인되는 한자 병기를 떠나,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한문 텍스트가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 등등의 외국어 표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프랑스어나 영어 또는 러시아어 표현과 인명이 해당 언어로 병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정명환 회원과 조주관 회원의 저서는 ‘순수한’ 한글 전용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것은 발음상 동일한 어휘이지만 한자 표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미술관美術觀’과 ‘미술관美術館’에 대한 조주관 회원의 논의가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한 그림들』의 “작가의 말”에 나온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도 한자 병기의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조주관 회원의 두 권 저서는 순수한 한글 전용 텍스트라 할 수 있겠다. 순수한 한글 텍스트가 보일 법한 활자상의 균형미와 조화미를 십분 살리고 있는 정명환 회원과 조주관 회원의 저서는 순수한 한글 전용 텍스트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소중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사례와 달리, 조동일 회원의 저서는 최소한의 한자 표현만을 동원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른바 국한문 혼용체의 예에 해당하는 글로 이루어져 있다. 조동일 회원은 그의 저서에서 단순히 한자나 한문 표현을 병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자나 한문 표현을 필요에 따라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한문 혼용체의 예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조동일 회원의 평소 지론持論을 이 자리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지론에 의하면, 한자와 나아가 한문은 단순히 요즘 통용되는 중국어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공용문어”라는 것이다. 즉, 서양에 라틴어라는 공용문어가 있듯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한자와 한문으로 이루어진 공용문어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서양 사람들은 그네들의 글에서

어쩌다 라틴어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이에 대한 자국어 표현을 병기하지 않는다. 예컨대, ‘ad hoc’이든, ‘id est’든, ‘quid pro quo’든, ‘quod erat demonstrandum’이든, 그 외에 어떤 라틴어 표현이든, 그네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라틴어 표현을 일상적 글이나 학문적 글에서 자유롭게, 그것도 자기네 모국어 표현을 병기하지 않은 채 동원한다. 우리에게 한자와 한문은 그와 같은 라틴어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의 “공용문어”라는 것이 조동일 회원의 입장으로, 그의 국한문 혼용체는 이 같은 입장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조동일 회원의 입장이 지닌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한문 혼용이나 한글 전용이냐의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한글 전용이 대세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가독성可讀性의 면에서나 컴퓨터의 시대의 효율적인 글쓰기 면에서도 한글 전용의 논리를 쉽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 제2분과 소속의 한 회원께서 귀뜸해 주셨듯 민족적 자긍심 때문에라도 한글 전용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일 수도 있겠다. 그에 의하면, 국제회의에 갔다가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 놓은 명함을 외국인 학자에게 건넸더니 그가 자신에게 ‘당신은 중국인인가, 아니면 일본인인가’를 묻더라는 것이다. 이에 ‘나는 한국인’이라고 대답했더니, 이렇게 다시 묻더라는 것이다. ‘당신네 나라에는 고유한 표기 문자가 없느냐?’ 그 이후 그는 자신의 명함에서 한자를 제거하고 한글로 이름을 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글 전용의 논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지?

사실 필자가 한글 전용이나 국한문 혼용이냐의 문제가 현실적인 당면 과제임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된 것은 지난 2021년을 거의 마감할 무렵에 있었던 임원회의에서의 논의 때문이었다. 그 자리에서 한 회원께서 한글 전용 시대인 만큼 한자로 된 학술원의 명칭 표기—즉, “大韓民國學術院”—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으셨다. 아직은 좀 더 토의를 거쳐야 할 때라는 신중론에 밀려 논의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지만, 이는 언제든 표면화될 수 있는 쟁점이다. 하기가 이 글이 발표될 『대한민국 학술원 통신』의 표제도 한자—즉, “大韓民

國學術院通信”—로 표기되어 있고 회원의 성명과 직함 역시 한자로 표기되고 있지만, 주요 기사를 소개하는 목적차는 2021년 8월 1일자(통권337호)부터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으니, 어찌 논쟁이 현재 진행형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언젠가는 학술원의 명칭 표기는 물론이고 “학술원 통신”의 명칭마저도 한글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까. 한자와 한문이 우리나라 학문 전통의 저변을 이루는 문화유산의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는 마당에, 심지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용문자”라는 입장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최고의 학술 기관”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학술원이 그 문화유산과 학문 전통을 담지하고 있는 한자 표기, 그것도 최소한의 한자 표기마저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 수 있겠는가. 또한 이제까지 오랜 세월의 전통을 이어 온 학술원이 오랜 세월 견지해 왔던 이른바 ‘명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옳은 처사일까. 물론 학문 세계란 진보적이고도 혁신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모든 논의의 과정에 절차와 형식과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보수적인 세계가 학문 세계이기도 하다. 요컨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 또는 학문 유산과 자산 또는 형식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명패’를 바꾸는 일은 단순히 ‘명패’를 바꾸는 일을 넘어서서 넓은 의미에서 바로 이 전통 또는 유산과 자산 또는 형식을 폐기함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학문 세계에는 마땅히 있을 수 있다. 진실로 세상이 현실에 영합하여 온통 경박스럽게 바뀌더라도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감지케 하는 고유의 유산이나 자산 또는 형식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학술 기관”인 학술원의 구성원 모두의 의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일련의 반론反論이 한글 전용론을 주춤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논의가 끝날 수 없음을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퇴양난의 질곡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해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하다면 현재 학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보기 바란다. 홈페이지의 첫째 면 왼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학술원”를 지시하는 흘림 궁서체 한글 표기 아래에 해서체 한자 표기가 위아래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를 차례로 동원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둘을 다 취하거나, 한글 표기든 한자 표기든 어느 한 쪽을 취하는 것은 어떨지? 아무튼, 앞으로의 논의가 어느 쪽으로 진행되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학술원은 이와 관련된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어문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학술원 인사 제2분과의 “분과 및 학계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필자가 이 문제를 거론함은 이 때문이다.

아아, 필자가 이 글을 마련하는 동안 인사 제2분과 회원 모두에게 또 한 분의 정신적 지주이자 원로이신 김완진 회원께서 슬프고 안타깝게도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밝고 환한 미소를 입가에서 잃지 않으시던 그

처럼 자상하시고 따뜻하시던 어른을,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넓은 학문적 식견과 업적으로 우리 모두의 학문 연구에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던 어른을, 분과회의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모임의 자리를 즐겁게 해 주시고 유익한 이야기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던 어른을 갑작스럽게 잃고 인사 제2분과의 회원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만일 이 글이 횡설수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눈앞에 닥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필자 역시 경황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아, 선생님, 어찌하여 그처럼 황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셨는지요! 이제 제가 평소 마음에 담고 있는 한용운의 시 구절로 저의 두서 없는 잡문을 끝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¹⁾

[추모사]

과학과 실천의 심리학을 제시하다

-조대경 교수님을 추모하며-

李載湜 教授(부산대학교 심리학과)



故 조대경 회원(인문사회 제1분과)

지난 명절 연휴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에 조대경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가 보내드린 약소한 선물에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위 일기예보가 요란할 때, 스승의 날에, 혹은 문득 교수님 생각이 날 때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기는 했지만 직접 뵈옵지는 꽤 오래된 듯 합니다. 교수님과 통화하면서 잘 드시고 건강하시라 말씀 올리면 당신께서는 항상 건강하시다고, 이제 옆에 친구가 없어 서운하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 올라오면 댁에 한번 오라는 말씀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출장 등으로 서울에 가끔 올라가기는 했지만 집에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수님 직접 찾아뵙는 대신 열차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부산으로 내려가기 바빴던 제 모습이 떠올라 죄책감과 송구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조대경 교수님께서 타계하신 이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교수님에 대한 추도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제자로서 교수님을 기리는 추도의 글

을 써서 바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교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기초하여 추도사를 작성하려 하니 행여 교수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에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 추도사를 쓰면서 교수님에 대한 저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약력

조대경 교수님께서서는 1932년 1월 30일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향년 91세를 일기로 2023년 8월 4일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를 마치셨고(1957년), 잠시 석사과정에서 공부하시다가 독일로 유학을 떠나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1965년). 이후 모교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1966년),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임 기간에 문리과대학 교무과장(1974년~1975년), 학생생활연구소장(1980년~1981년), 그리고 기획실장(1984년~1985년)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로교통안전협회 특별연구위원(1985년~1992년), 제17대 한국심리학회 회장(1985년~1986년),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초대회장(1991년~1992년) 등을 역임하셨으며 1996년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셨습니다.

학자의 길: 과학자이자 실천가로서의 삶

조대경 교수님께서서는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정신분석학 분야의 전문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특히 프

로이트와 정신분석학을 심도있게 공부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탁월한 역량에는 당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활발하게 다루어졌던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신 것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서는 기존에 발표된 저서나 논문들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원서에 대한 번역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기존 연구의 결과들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과학자이자 실천가로서의 자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특히 우리나라 학자들이 외국 원서를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꿈의 해석』(1993, 서울대학교출판부)은 독일어로 된 원서를 우리말로 직접 번역하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독일어판 『꿈의 해석』 원서를 우리말로 직접 번역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에 대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독일어를 포함하여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원서를 누군가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판 역서를 다시 우리말로 옮길 경우 그 과정에서 원서의 내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서가 저술될 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언급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꿈의 해석』에 포함된 프로이트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이 책은 2006년에 교수신문이 편찬한 『최고의 번역서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비평가들로부터 우수한 번역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학자적 자세와 능통한 독일어 실력이 결합되어 훌륭한 역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대경 교수님께서서는 앞에서 언급한 『꿈의 해석』을 완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찰스 브레너(Charles Brenner)가 저술한 『정신분석학』(1968)과 리처드 윌하임(Richard Wollheim)이 저술한 『프로이트』(1987), 그리고 프로이트가 직접 저술한 『실수의 분석』(1976)을 번역하시는 등 우리나라에 정신분석학과 프로이트를 소개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조대경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임

상심리학의 개척자이기도 하였고 임상심리학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공헌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임상심리학 전공서적을 저술하셨고(1967), 임상심리학보의 창간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심리과학자로서 심리학의 전문영역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기도 하셨지만 일상에서 사람들이 접하는 실제적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심리학적 지식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의 대부분은 인간 실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 교통사고의 95%, 작업장 사고의 85%, 항공기 사고의 75%, 그리고 선박 사고의 65% 정도가 인간 에러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교수님께서서는 한국심리학회와 산하 한국사회문제연구학회의 발족을 주도하셨고 이 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통찰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학 실천가로서의 노력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량과 자신감

교수님께서서는 한국전에 미해군 통역장교로 참전하셨습니다. 미해군의 통역장교가 되신 것에는 교수님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기여했겠지만 단순히 영어 능력만이 아닌 교수님의 순발력있고 정확한 판단과 대처 능력이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통역장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이 있었을 때의 일화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군의 한 면접관이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What is war?”) 질문하셨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쟁의 여러 측면에 대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 “전쟁은 지옥입니

다(War is hell)”. 교수님께서서는 2015년에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해군장교로 근무하시던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 장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해군 제복을 입은 단정한 자세의 건장하고 잘생긴 한 젊은이가 무엇이라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조대경 교수님은 영어는 물론 독일어와 일어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교수님과 저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22차 국제응용심리학회 학술대회에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 학술대회의 교통심리학분과를 조직하시는 역할을 하였고, 토론회에서는 좌장도 맡으셨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발표자들이 발표내용을 영어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서는 독일어와 일어, 영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하시며 토론회를 원활하게 이끌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심리학의 선구자

제가 학부생이었던 1980년대 중반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000명을 훨씬 넘었고, 점점 그 수치가 증가하다 급기야 1991년에는 13,000명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루에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략 2,700명(2022년 기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니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당시에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제가 교수님 연구실로 교수님을 뵈러 갔을 때마다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성격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특히 프로이트의 대가이시기도 하셨지만, 심리학 지식을 실제 생활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시는 심리학의 선구적 실천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심리학 지

식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수님의 의지는 저서와 논문을 통해 여러 번 반영되고 강조되었습니다. 1993년에 발간된 저서인 『사람과 자동차』를 비롯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심리학』(1990), 『도로표지판의 정보전달에 관한 인간공학적 고찰』(1990), 『도로교통과 사람』(1990), 『보행자의 사고』(1991), 『알코올과 운전』(1995),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의 응용』(1997)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에서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이나 이론이 어떻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교통심리학이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교통사고 문제 해결에 심리학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심리학도들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클레베스베르크(Klebelberg) 교수의 저서인 『Verkehrspsychologie(교통심리학)』을 소개해 주셨고, 일본 오사카대학의 교통심리학 전공 교수이셨던 나가야마(長山泰久)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야마 교수님은 조대경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유학하시던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조대경 교수님께서서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심리에 대해 나가야마 교수님과 꾸준히 소통하셨고 오사카대학 심리학과에서 수행하던 운전자 행동 연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오사카대학을 방문하여 나가야마 교수님과 그의 제자인 령계(蓮花一己) 교수님을 직접 뵈고 일본 교통심리학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교통사고 문제를 다루시면서 자동차와 도로가 갖는 문제들도 고려하셨지만 왜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휘말리는지 즉, 교통사고에서의 인적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셨습니다. 지극히 심리학자다운 접근을 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창하거나 대단한 문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부터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실용적 태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학부 3학년이던 어느 날, 교수님과의 대화 중에 교수님께서 “보행자가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 녹색등이 너무 일찍 적색등으로 바뀌는 것 같아. 사람들이 횡단 도중에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해 여름 방학 동안 저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몇일에 걸쳐 꽤 많은 수의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보행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들이 50m를 보행하는데 평균 16.15초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을학기 개강 후에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결과를 교수님께 알려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보고서를 계기로 제가 교수님의 신임을 좀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제 눈을 보시는 대신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연구실 천장을 응시하시면서 제게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군, 자정쯤 되는 시간에 차량통행이 드문 한적한 도로라면 운전자들의 몇 퍼센트나 신호등을 제대로 지킬까?” 그 해 겨울, 서울 반포 근처 어느 교차로 옆은 유난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필자와의 만남과 인연

조대경 교수님과 저와의 인연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학부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때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던 성격심리학이란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어느 강의 시간에 약간 졸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에도 비몽사몽의 혼미한 정신 상태였는데, 어렴풋이 교수님께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간단한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다음 주에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써보려 하니 도대체 뭐가 뭔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던 제 성격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하여 레포트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그다음 주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이 마치는 시간까지 레포트 제출에 대한 말씀이 없이 그냥 강의실을 나가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레포트 받는 것을 잊으신 것이라 확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교수님 연구실로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조대경 교수님 연구실은 물론 심리학과 교수님의 연구실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실 문을 노크하고 고개를 내밀었을 때 교수님께서 “무슨 일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긴장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왜 레포트를 받지 않으시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레포트 숙제를 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았던 바람에 제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레포트 숙제를 일주일 동안 끙끙대며 작성했던 것입니다. 저는 창피하고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당황하고 있는 제가 불쌍해 보이셨는지 일단 들어와 연구실 소파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수님 특유의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일상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여러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몇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제 평생 공부의 주제가 되었던 교통심리학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리움

교수님의 사모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대단하셨습니다. 조대경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사모님께서 전공하고 계시던 영어영문학 강의를 많이 수강하셨는데 모든 과목의 학점이 최고였습니다. 어느 날 영어영문과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서 최고 학점을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아닌 심리학과 학생이 줄곧 차지하는 것에 대해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을 질타하셨다고 합니다. 왜 심리학과 학생이 영어영문학과 수업을 모조리 수강하고 학점도 최고로 받으셨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교수님은 독일 유학 시절 학비 마련을 위해 철도 하역장에서 짐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사모님께서도 우체국에서 일을 하셨는데 사모님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 교수님께서 가장으로서의 미안함을 항상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1997년에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에서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의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

에 얼마 되지 않은 박봉으로 사모님께서 힘들게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한 것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얼마나 진솔되고 감동적이었던지 사모님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께서서는 갑작스럽게 많이 아프셨고, 몇 년간의 투병과 회복을 반복하시다 몇 해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사모님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편지를 보내 주신 적은 있었으나 한국과의 시차로 보면 전화는 의외였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얼마 전에 미국에 오셨고 이틀 후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신세가 되는 것을 조심하시는 깔끔한 성격이 시라 미국에 오신다고 미리 저에게 전화는 하지 않으셨지만 미국에 계시니 그래도 제자와 통화나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전화하신 것입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표를 끊어 다짜고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고 교수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을 마치고 귀국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과 회복 기간을 감안하면 몇 개월 동안 홀로, 그것도 타국에서 사모님을 돌보신 것입니다.

사모님께서 작고하신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교수님 자택으로 가서 교수님을 뵈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은퇴 이후에도 공부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응접실에 보통 크기의 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큰 종이를 가로로 길게 이어 붙인 다음 우리나라 역사를 외국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직접 작성하신 각국의 연대기 자료, 한문 서적, 한자를 연습으로 써 보신 듯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 위에 하모니카 하나도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교수님께서 하모니카를 연주하시는지 여쭙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아무 말씀 없이 노래 한 곡을 바로 연주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노래였는데 가사가 이릅니다. “그토록 사랑한 그님을 보내고, 어이해 나 홀로 외로워하는가, 생각하면 무얼 해, 만날 수 없는 님,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빌리라”. 돌아가신 사모님을 그리워하시는 교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왠지 서글피 들리는 하모니카 소리로 온 방안을 가득 채운 듯 했습니다.

추도사를 마치며

제가 교수님과 만나 스승과 제자로서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제가 닮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일부러 교수님의 필체를 흉내 내어 제 글씨체를 바꾸어보려고 했고, 항상 밝은 어조로 유머도 섞어가시면서 말씀하시던 어투, 심지어 걸음걸이도 닮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얼굴을 다시 뵈지 못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한참 전, 저의 선친께서 작고하셨을 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선친께서 작고하신 다음 교수님께서서는 누구나 가는 길을 가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유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리워하셨던 사모님과 이제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교수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학술교류]

제20차 세계사회학대회 참가기 (World Congress of Sociology)

林玄鎭 會員(정치사회학)



I. 머리말

국제사회학회(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제20차 세계사회학대회가 오스트레일리아(이하 濠洲로 표기)의 Melbourne에서 2023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1년 연기 끝에 5년 만에 개최되었다. 현지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하였지만 직접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토록 준비하였다. 전 세계 107개국에서 모두 4,701명이 참가하여 6,500편(신청기준)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62명이 참가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을 대표하여 참석한 임현진 회원은 사회와 발표를 맡았다.

이번 세계사회학대회는 한국 사회학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21차 세계사회학대회를 앞으로 4년 후인 2027년 7월 4일부터 11일 사이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번 광주 대회를 위해 한국사회학회는 ‘한국의 밤(Korea Night)’을 준비하여 100여 개 국가를 대표하는 사회학회 회장단을 초청하였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빛고을’ 광주가 정의,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소개되었다.

호주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으로 표기한다. 호주는 한국에 비해 인구는 절반이 안 되지만 국토 면적은 무려 77배가 되는 광활한 지역이다.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나라다. 대부분이 아웃백으로 알려진 奧地로 고산 지대와 열대 우림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캥거루, 코알라, 에뮤, 오리너구리, 가시두더지, 유칼립투스 등 신기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꽃이 피는 식물의 85%, 포유류의 84%, 조류의 45%, 어류의 89% 등이 호주에만 서식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종 다양성의 위기를 고려하면 호주가 앞으로 인류세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이 오지이다 보니 주민은 주로 해안 지역에 거주한다. 제1의 도시 Sydney와 제2의 도시 Melbourne이 각축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내륙 도시 Canberra가 수도가 되었다. ‘숲속의 수도’라 불리울 정도로 Canberra는 도시와 정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생전에 호주를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학문의 수도’라고 칭송했듯이 호주학술원이 Canberra에 자리잡고 있다.

호주는 한때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지상의 낙원’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白濠主義(white Australia policy) 아래 온유한 원주민들을 대거 학살하고 白人王國을 건설하는 와중에서 인권과 정의는 부정되었다. 학살과 억압이라는 가혹한 정책으로 원주민들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잃었고 온전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없었다. 고유한 언어는 금지되었고 개화라는 명분으로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해 강제로 입양시키거나 수용소에 격리하였다. 현재 원주민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3%에 미치지 못한다. 호주 정부가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2008년 실시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英聯邦이다 보니 찰스 국왕이 원수이고 그를 대표하는 총독이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전형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원내각제 국가이다. 경제체제는 영미식이지만 사회보장만은 대륙 유럽처럼 최대주의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주의적 복지가 잘 자리잡혀 있다. 2020년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평가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 UN ‘행복도 조사’(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근래에 들어 호주는 고민이 적지 않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미래 생존과 번영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80년대 백호주의로부터 탈피는 불가피했다. 인구성장이 멈추면서 유럽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아시아로 방향을 돌려 이민을 적극 유도했다. 2022년 현재 호주의 출산율은 1.6에 머물러 있지만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에 의해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호주는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에 적극적이다. 숙련과 비숙련 노동력이 모두 필요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

오세아니아 국가로서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국으로 위상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호주는 한편으로 미국과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3자 협의회(AUKUS)와 4자 협의회(QUAD)의 주요 구성원이지만,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경제공동체(India-Pacific Economic Framework), 중국이 주도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그리고 일본이 중심인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미국과의 확고한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미중 사이에 묻히지 않고 외교와 무역에서 독자적 입지를 유지하려는 시도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인 Melbourne은 문화도시다. 골드러시 당시 중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이 들어와 샌프란시스코를 ‘舊金山’이라 불렀듯이 Melbourne은 ‘新金山’으로 표현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 도시 중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新시가지는 파리, 舊시가지는 런던 같다. Melbourne 사람이 점잖다면 Sydney 사람은 세속적이라는 비유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노동당 등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주민들이 많다.

이 많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영국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250여 개의 부족 국가를 구성했다. Melbourne이 있는 Victoria 지역은 Wurrundjeri 라고 불리는 사람들에서 갈라진 Boon wurrung, Woi wurrung, Taung wurrung, Ngurai-illum wurrung, Wutha wurrung 등 5개 부족 연합이 Kulin nation을 이루었다. 이 중 Melbourne 지역에 있던 부족국가의 이름이 Narm이다. 이번 세계사회학대회(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를 조직한 호주사회학회는 원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개막식에서 Wurrundjeri 노래와 춤, 그리고 유칼립투스 잎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예식을 거행했다.

II. ISA 세계사회학대회 요지

사회학자들의 지구적 네트워크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Rene Worms를 중심으로 1893년 출범한 국제사회학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이고, 다른 하나는 Louis Wirth가 1949년 창립한 국제사회학회(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이다.¹⁾ 국제사회학협회가 국제사회학회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미하다. 매 2년 열리는 세계대회도 스웨덴 Uppsala에서 2013년 개최한 이래 정지된 상태이다. 이와 달리 국제사회학회는 매 4년 세계사회학대회를 열고 있으며, 일본 Yokohama에서 2014년, 캐나다 Toronto에서 2018년, 호주 Melbourne에서 2023년에 개최되었다.

제20차 세계사회학대회의 주제는 “다시 유행하는 권위주의: 종교, 정치, 경제 사이의 새로운 복합 관계에 관한 사회학(Resurgent Authoritarianism: Sociology of New Entanglements of Religions, politics and Economies)”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 아래 세계적 전염병의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



〈사진 1〉 Narm에 대한 소개

1) 두 기관의 유래와 역사에 관해서는 임현진, “제19차 세계사회학대회 참가기”, 학술원통신, 2018년 10월 1일, 제303호를 참고하라.

의 진영 사이의 대립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주요 사회과학 관련 세계대회도 서로 비슷한 주제를 내걸었다.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 7월 20~22일 사이 열린 제35차 세계사회경제학회(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는 “이행기 세계의 사회경제학: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구분선과 대안적 패러다임(Socio-Economics in a Transitioning World: Breaking Lines and Alternative Paradigms for a New World Order)”이었다. 아르헨티나의 Buenos Aires에서 7월 15~19일 사이 열린 제27차 세계정치학대회는 “국경을 넘는 위기 시대의 정치: 취약성과 회복성(Politics in the Age of Transboundary Crise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이었다.

1. 개막식

올해 국제사회학회는 6월 25일 개막식과 함께 기조연설로 시작을 알렸다. Melbourne의 동쪽에 터전을 잡은 Wurrundjeri 부족의 성년식 관습인 Murrum Turrukuruk으로 전 세계의 사회학자들을 맞이했다. 이 의식은 1800년대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금지되었으나, 185년이 지난 2015년 부활하게 된 전통으로 국제사회학회의 개방과 포용의 의미와 걸맞았다.



〈사진 2〉 Wurundjeri 부족의 Murrum Turrukuruk 의식

국제사회학회 Sari Hanafi 회장의 개회사가 바로 뒤따

랐다. Hanafi 회장은 지난 5년간 국제사회학회의 회장직을 맡은 소회를 밝히며 두 가지의 성과에 주목했다. 첫째로, 국제사회학회의 81년의 여정 속에서 서로 다른 연구 주제와 배경을 가진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가져다준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Global South의 젊은 연구자들이 가져다줄 다채로운 사회학의 또 다른 희망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 국제사회학회 회장인 Margaret Archer 등 최근 세상을 떠난 사회학자들을 추모하며 그의 개회사를 마쳤다.²⁾



〈사진 3〉 개회사를 하는 국제사회학회 Sari Hanafi 회장

다음으로 2023년 Melbourne 세계사회학대회 호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인 Jo Lindsay 박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그녀는 호주의 사회학자들이 과거의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현재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사회학회에서 다뤄질 호주 주제 세션(Australian Thematic Sessions)에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간략한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호주사회학회 Alpha Possamai-Inesedy 회장은 호주에서 국제사회학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호주에서 지속되어온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며 사회학자들이 대학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번 학회가 큰 반향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국제사회학회는 4년마다 회장을 선출한다. Hanafi 회장의 뒤를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Geoffrey Pleyers(벨기에의 루뱅기톨릭대학교 교수)가 새 회장으로 복무할 것이다.



〈사진 4〉 환영사를 하는 Jo Lindsay 2023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 6〉 Excellence Award를 받는 Raewyn Connell 교수



〈사진 5〉 호주사회학회 Alphia Possamai-Inesedy 회장의 인사



〈사진 7〉 Junior Sociologist 상을 받는 Nadia de Silva

환영사 다음으로는 시상식이 있었다. 국제사회학회 회장으로부터 수여되는 ISA Excellence in Research and Practice Award의 영예는 University of Sydney의 Raewyn Connell 명예교수에게 주어졌다. 그녀는 60년간 수행해 온 자신의 연구에 대한 소감을 간략히 밝히며 후속 연구세대에게 네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큰 사회문제들에 주목할 것, 둘째로 자신이 수행하고 생산하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신념을 가질 것, 셋째로 연구를 통해 소수가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Serve the people, not the billionaires), 그리고 넷째로 담대해질 것(Be bold)을 요구했다. 이어서는 ISA Worldwide Competition for Junior Sociologists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의 영예는 스리랑카 시골 여성의 소액 융자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분석한 Nadia de Silva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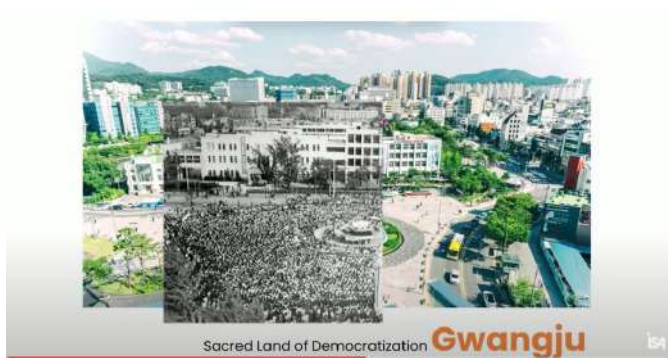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연세대 한준 교수 (2027년 광주 국제사회학회 공동 조직위원장)의 광주 세계사회학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준 교수는 다음 국제사회학회가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을 무척 기쁘

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거처온 분단으로부터 평화의 역사(From Division to Peace), 受援國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변모(From Aid Recipient to Donor), 산업화에서부터 민주화에 이르는 과정(From Industrialization to Democratization)은 국제사회학회에 다양한 연구 관점과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가 지닌 민주화의 역사를 소개하며,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며 美食의 도시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회대의 “A Grand Festival of Sociology”라는 주제에 걸맞게 5·18 민주항쟁을 기리는 특별 세션을 구성하고 공공 프로그램, 네트워킹 파티, 지역 축제를 조화시키는 학회를 개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Sari Hafari 회장이 “對話의 사회학을 향하여(Toward a Dialogical Sociology)”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었다. 그는 後期 근대성(Late Modernity)에 대한 논의가 사회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횡행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이로 인한 세계적 우경화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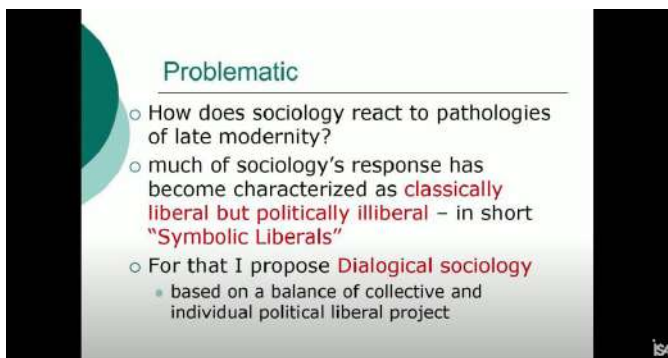


〈사진 8〉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회회를 소개하고 있는 연세대 한준 교수



〈사진 9〉 광주 세계사회학회 소개 자료 중 일부

와 파생되는 빈곤, 불평등, 배제의 사회적 쟁점들에 관해 검토했다. 이러한 후기 근대성의 병폐적 문제는 신자유주의, 감정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화의 사회학을 주장하며 끊임없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소통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10〉 Hafari 회장의 강연 자료 일부

2. 기조세션 1: Liberalism, the Other and Religion, Plenary 1, 2023년 6월 26일 오전 08시 30분-10시 20분.

국제사회학회 Sari Hafari 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기조세션은 네 명의 연사가 각각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시대로 인해 부닥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위기에 관해 이야기했다. 먼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Cecile Laborde 교수는 기존 세속주의와 비교해 보다 일반적이고 정당한 비판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 이론인 “최소한의 세속주의(minimal secularism)”를 제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론이 기존의 세속주의와 달리 종교, 특히 기독교적 종교관에 적대적이라는 비판에 취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선한 삶(good life)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국가 ‘중립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철학보다 더 구조적이고 정확하다고 밝히며 발표의 제목처럼 주장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세속주의가 초국가적인 진보 정치의 이상적 철학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다음으로는 카타르 아랍연구정책연구소의 Azmi Bishara 박사가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념은 정권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원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주의자들(liberals)이 포괄적 자유주의를 주장해야 하는가 혹은 최소한의 롤스식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자유주의 가치가 빠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문화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브라질의 Rio de Janeiro 대학의 Frederic Vandenberghe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사회학의 기본원리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있으며 사회학이 사회 부정의와 병폐에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때는 자유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야만 학문이 외부의 권위주의적 정권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상호의존성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호주 Deakin 대학의 Anna Halafoff 교수가 종교적 민족주의와 반세계주의적 테러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종교적 민족주의 및 반세계주의의 여러 모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푸틴과 인도의 모디 총리의 모습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동시에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갈망과 여성 및 性少數者의 인권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논의를 예시로 들며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입각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 기조세션 2: Building a Just Post-COVID-19 World, Plenary 2, 2023년 6월 30일 오후 2시~4시 30분.

이번 국제사회학회는 COVID-19 이후의 사회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 “Building a Just Post-COVID-19 World”라는 주제 아래 또 하나의 기조세션을 구성했다. 사회를 맡은 Sari Hafari 회장은 전례없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COVID-19 위기는 공공 및 환경 보건이나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모의 후기 근대성과 그 자본주의 체제의 변동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Afe Adogame 교수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양극화와 종교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는 팬데믹은 사회를 망가뜨리고 여러 사회경제적 격차 및 불평등을 드러냈지만, 역설적으로 과학, 정치체제, 종교 사이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COVID-19 이후 종교와 과학은 서로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뉴노멀에 대처하는 사회와 문화의 집합적 기억의 중요성을 상기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고등교육원의 Didier Fassin 교수가 팬데믹이 가져온 세계적 영향력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공공 보건과 사회 불평등의 양면성에 집중하여 다양한 구조적 차별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별 불평등에 대해 주목하여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사회에 관여할 수 있는 조직적 개입에 대해 강조했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Eva Illouz 교수가 COVID-19로 인해 나타난 공포, 그리고 이에 대한 반민주주의적 정서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는 COVID-19가 단순히 보건의 문제를 넘어 이와 관련한 제도적 대처와 관련해 시민들의 감정과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에 미친

거대한 영향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형에 대해 논했다. 그 중에서 그녀는 두 사회 주체 간의 갈등이 민주주의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며 사회적 연대의 재건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고등교육원의 Guangjin Chen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Chen 교수는 COVID-19 이후의 중국 사회 내 발전과 정의(development and justice)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공공 보건의 위기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차이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형성과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구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발전에 이로운 길임을 강조했다.

4. 한국사회학회 세션: The Restora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2023년 6월 29일 오후 3시~5시.

한국사회학회가 조직한 독자 세션이다. 그간 사회학 분야 국제학회에서 한국 이슈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지만, 이번 세계사회학대회에서는 외국 학자 중 한국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한국 주제 세션은 한국사회학회 설동훈 회장이 기획하였고 임현진 회원이 사회를 맡았다.



〈사진 11〉 한국사회학회 세션 발표자들 (사회를 보고 있는 임현진 회원)

특히 이번 세션은 6명의 발표자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사회학자들로서 논문의 내용과 발표 수준이 매우 높았다. 발표 주제도 작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 즉 민주주의 위기, 시민권, 불안과 공정, 배태된 발전주의, 한국 인권상황 부침, 그리고 실향민과 탈북민 등이었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분단상황과 개발독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눈부신 변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 이면에는 중층적으로 결합된 복합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직면하여 초국적 연결사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사회를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날로 첨예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기후위기와 연결된 코로나 19 팬데믹의 충격,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주권 이슈는 미래 한국의 생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첫 번째로 고려대 사회학과 정일준 교수는 “법 제도를 동원한 통치(judicialization)가 과연 정의를 구현하는가?”라는 발표를 했다. 30년 넘게 검찰조직에서 근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법치에 근거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 정치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에 의한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불법만 아니면 다 된다는 것이다. 양심과 도덕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다. ‘자유’, ‘법치’를 강조하지만 지나친 검찰지배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공석기 교수가 소위 K-방역에 대한 국내외 찬사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인내와 순종을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침해가 늘어났다고 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디지털 혁명과 알고리즘 지배에 기초한 플랫폼 경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침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궁극적으로 민주적 시민권의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개인의 공간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영역으로 나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는 서울시립대 사회학과 박효민 교수와 장원호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정의에 대한 평가에서 불확실성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고,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한 예비적 연구를 소개하였다.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이것이 중립적인가,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편파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고 보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은 정의 평가에 대해 서로 다르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정의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었다. 정의로운가에 대한 평가는 곧 보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됨을 재확인하였다.

네 번째 발표는 전북대 사회학과 박천웅 교수가 한국 전쟁 이후 냉전체제 국면(1960-80대)에서 ‘발전마인드’가 어떻게 배태되고 작동하였는지를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개발독재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주도 발전전략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료와 지식인이 어떻게 발전주의를 사회적으로 구성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정부 정책기획 분야의 주요 공무원과 연구기관 지식인 간에 정책 협력과 갈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본 식민지 유산과 미군정의 영향으로 발전주의는 국가주의, 組合主義(corporatism), 重商主義, 그리고 통화주의가 합쳐진 결과물이다. 즉 한국의 국가주도 발전주의는 일본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습하고 추후에 미국식으로 재사회화를 거친 관료들과 지식인들이 유연하게 재구성한 이데올로기적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섯째 발표는 연세대 사회학과 한준 교수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최근의 국가인권통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국 인권의 부침과 새로운 도전에 관한 것이었다. 절차적 민주화 달성의 하나의 지표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들 수 있다. 2019년부터는 국가인권통계가 법제화되어 매년 인권 의식 및 침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의 인권 의식은 분명 높아지고 인권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차별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세대와 젠더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섯째 발표는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와 정태석 교수가 한국 사회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한 失鄉民(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온 越南民)과 脫北民(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북한 주민)에 대한 정체성과 상호 인식비교에 관한 것이었다. 前者는 이주민이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住民이지만, 後者는 한국으로 새 터전을 마련한 移住民으로 서로 성격을 달리한다. 오늘의 한국인은 실향민, 국제결혼 외국인(귀화 한국인), 탈북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순으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세션의 참석자 중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인권 침해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받은 차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한국 인권상황과 개선과 관련하여 인권 정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기되었다.

5. Session 275. The State and Society Relationship in East Asian Countries Under COVID-19 Pandemic
2023년 7월 1일 정오 30분-2시 20분

이 세션은 RC-18 정치사회학 세션으로 상대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동아시아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시장과 사회도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개별 기업이나 NGO가 할 수 없는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권한이 국가로 집중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모두 네 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일본 쓰쿠바 대학교의 Okura Sae 교수가 일본의 간호사 단체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변화 사례, 서울대학교 임현진 교수와 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가 한국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변모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사회와 관계 변화의 특징, 일본 나가사키 대학

교 Fujita Taisuke와 쓰쿠바 대학교 Yamamoto Hidehiro이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팬데믹 시기 국가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태도를 존 롤스(John Rawls)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의 분석,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임운택 교수가 팬데믹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가 그것이다.

일본 쓰쿠바 대학의 Yamamoto Hidehiro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중국에서 코비드-19 담론이 중국의 문화와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발표자가 불참하여 발표되지 못했다. 발표 하나가 취소되면서, 발표와 토론 시간이 늘어나 오히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세션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변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네 편의 발표는 각기 다른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일본의 경우는 간호사 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였고, 한국의 사례는 발전주의 국가의 부활에 관한 검토였고, 정부의 재난지원에 관한 논의는 시민들을 위한 재분배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였고, 그리고 동아시아 한·중·일 3국 간의 관계 변화는 지역적 차원의 국제관계를 다루었다. 코비드-19 팬데믹 시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국가와 사회 사이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다루어져서,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사회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III. 2027년 WCS 한국 광주 개최를 준비하며

한국사회학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Korea Night)은 6월 27일 밤 9시에 12시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2027년 제21차 광주 세계사회학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국제사회학회 Sari Hanafi 회장을 비롯하여 54개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사회학자들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환담 속에 진행되었다. 한국사회학회는 2020년부터 세계사회학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광주광역시와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지역으로서 광주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영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한국사회학회의 지난 70년과 향후 세계사회학계에 대한 기여와 전망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임현진 회원은 2027년 세계사회학대회 조직위원회 자문단장 자격으로 제21차 광주 세계사회학대회 개최의 의의를 설명하는 환영의 인사를 전하였다. Canberra에서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온 김완중 駐 호주대사는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세계사회학대회가 사회과학 분야 학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줄 것을 격려사에 대신했다. 이진규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사회학이 중심이 되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적, 지적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세계정치학대회(World Congress of Political Science), 한국경제학회의 세계경제학대회(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가 2025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크고 작은 국제회의를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국제학술 네트워크에서 일본의 참여와 활동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도 국제학술 조직에서 독자적 위상을 세우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학회의 경우 기존의 대표권을 대만이 지니고 있어서 이번 세계사회학대회에 중국 학자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사진 12〉 임현진 회원의 환영사

제21차 세계사회학대회를 4년 앞두고 한국사회학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세계사회학대회라는 거대한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최국으로서 한국 사회학 나름의 학술적, 실천적 문제제기를 우리 이론과 방법으로 체계화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학문 후속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14년 제18차 요코하마 세계사회학대회를 위하여 석·박사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일주일간 발표와 토론의 경험을 쌓는 훈련을 시킨 바 있다.

제21차 광주 세계사회학대회가 초유의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Melbourne 대회에는 현장 참가 약 3,028명, 온라인 참석 약 1,673명으로 지난번 Toronto 대회 5,000명 현지 참석자보다 다소 적었다. 제21차 광주 세계사회학대회는 이번 대회를 웃도는 참석자를 예상한다. 그러나 광주의 국제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컨벤션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 손님을 맞이할 숙박 시설이 인근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를 보완할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4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진 13〉 국제사회학회 Sari Hanafi 회장과 함께

학술원 소식

회의 및 행사 안내

▣ 제7차 임원회 개최

-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11시
- 장소 : 학술원 중회의실(3층)

▣ 2023년 학술원 회원세미나 및 연구단지 방문

- 일자 : 2023년 9월 8일(금)
-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연구단지
- 참석자 : 학술원 회원 및 사무국 직원

▣ 제3회 학술원 집담회 개최

구 분	내 용
발표자/주제	조동일(인·사2) / 문명의 위기와 인문학의 역할
사회자/토론자	장경렬(인·사2) / 김호동(인·사3), 김진의(자연1)
일시/장소	2023년 9월 13일(수) 10:30~12:30 / 학술원 중회의실(3층)
참석대상	학술원 회원 중 희망자 ※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담당자(02-3400-5253, yountw9285@korea.kr)에게 9월 6일(수)까지 연락 요망

▣ 제68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최

- 일시 : 2023년 9월 18일(월) 14시
- 장소 : 학술원 대회의실(2층)
- 참석자 : 국무총리, 학술원 회원, 학술원상 수상자, 축하객 등

▣ 제5차 분과회 개최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분과	회의 일시	분과	회의 일시
1	9.22.(금) 11:00	1	9.21.(목) 11:00
2	9.22.(금) 11:00	2	9.19.(화) 11:00
3	9.22.(금) 14:00	3	9.21.(목) 11:00
4	9.22.(금) 11:00	4	9.21.(목) 11:00
5	9.21.(목) 11:00	5	9.20.(수) 11:00
6	9.19.(화) 14:00		

□ 2023년 한일학술포럼 안내

- 일시 : 2023년 9월 20일(수) ~ 9월 22일(금)
- 장소 : 일본 동경 학사회관
- 분야 : 경제학 및 공학

분야	주제	발표자	토론자	토론자 (일본학사원)	좌장
경제학	人間解放과 人類의 發展	이지순 (인·사 6)	정기준 (인·사 6)	矢野誠 (YANO Makoto)	유장희 (인·사 6)
	개도국의 공업화 전략	大塚啓二郎 (OTSUKA Keijiro)		齋藤修 (SAITO Osamu)	齋藤修 (SAITO Osamu)
공학	化學的 驅動力에 의한 界面移動	윤덕용 (자연 3)	최진호 (자연 1)	川合眞紀 (KAWAI Maki)	유정열 (자연 3)
	카본나노튜브의 발견과 그 배경	飯島澄男 (IIJIMA Sumio)		榊裕之 (SAKAKI Hiroyuki)	金出武雄 (KANADE Takeo)

회원 동정

회원 별세

• 조대경(曹大京) 회원(인문사회 제1분과)

- 별세일 : 2023.8.4. (향년 91세)
- 주요 학력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서울대학교 심리학 석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심리학 철학박사
-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교수, 기획실장, 명예교수
도로교통안전협회 특별연구위원, 한국심리학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1996.7.12.~2023.8.4.)
- 주요 서훈
국민포장(1997), 6.25 참전 국가유공자(2015)

• 윤기중(尹起重) 회원(인문사회 제6분과)

- 별세일 : 2023.8.15. (향년 91세)
- 주요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일본 一橋大學 경제학연구과
-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상경대학장, 명예교수
한국통계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연구원 이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2001.7.13. ~ 2023.8.15.)
- 주요 서훈
삼일문화상 학술상(1999)

• 김완진(金完鎭) 회원(인문사회 제2분과)

- 별세일 : 2023.8.18. (향년 91세)
- 주요 학력
서울대학교 문학사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교수, 학장, 대학원장, 명예교수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국어학회 회장, 한국어언어학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1982.11.20. ~ 2023.8.18.)
- 주요 서훈
세종문화상(1993), 국민훈장 동백장(1996), 동승학술상(200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인문 · 철학잡지 『타우마제인』 창간



인문사회 제1분과 이한구 회원이 인문철학 잡지인 『타우마제인』 창간호(1호)를 출간하였다. 타우마제인 재단은 인문정신과 철학문화의 창달을 이념으로 다양한 대중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새로운 문명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잡지의 제목과 같이 경이로움(thaumazein)을 주제로 하여 우주와 지구부터 정보 혁명과 인류세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회원 저서 발간

김효전 회원 편(인문사회 제4분과)
『헌법을 말한다 : 금랑 김철수 선생 90세 기념 및 추모논문집』 / 김효전 편, 산지니, 2023.7.31.



국제학술기구 및 외국학술원 행사 안내

■ ISC 특강시리즈: “Linking Mechanisms to Soil Functions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일시 : 2023년 9월 19일, 23:00(KST)
- 주관 : 국제과학이사회(ISC)
- 내용 : 토양과 그 기능은 대부분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빈곤 종식”과 “육상 생태계” 목표의 달성은 식물 성장을 위한 매개체를 제공하는 토양 용량에 크게 좌우되는 반면,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식물의 성장을 위한 매개체를 제공하는 토양의 탄소 저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Eleonora Bonifacio 교수는 토양의 탄소 저장 및 안정화 능력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 토양 특성과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 수종의 침입 사이의 관계, 가혹하고 번식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bit.ly/45nt2yK>
- 등록 : <https://bit.ly/3OYr1U9> (오른쪽 QR코드)



※ 관심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담당자(이슬 esther08@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